

# 해당화의 자연사와 문화사

THE NATURAL & CULTURAL HISTORY OF  
ROSA RUGOSA



## 해당화의 자연사와 문화사

THE NATURAL & CULTURAL HISTORY OF  
ROSA RUGOSA



비매품/무료  
93480  
9 791188 720477  
ISBN 979-11-88720-47-7

# 해당화의 자연사와 문화사

THE NATURAL & CULTURAL HISTORY OF  
ROSA RUGOSA

## 해당화의 자연사와 문화사

THE NATURAL & CULTURAL HISTORY OF  
ROSA RUGOSA

발행일 2018년 10월 31일  
발행처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발행인 국립수목원장 이유미

집필 이정희,이문규,이해주  
도해 이소영  
제작 THE-D

©국립수목원 2018

[www.kna.go.kr](http://www.kna.go.kr)  
[www.facebook.com/kna990524](https://www.facebook.com/kna990524)  
[twitter.com/kna99524](https://twitter.com/kna99524)

발간등록번호 11-1400119-000346-01  
ISBN 979-11-88720-47-7 (93480)

비매품/무료

## 머리말

1992년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UNCED)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됨으로서 생물주권의 개념이 대두된 이래, 이의 보호를 위해 2002년에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국제지침서(Bonn Guideline)가, 2010년에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의정서(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는 등 그 중요도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2005년부터 민속식물 전통지식의 주권확보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 구전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한국의 민속식물 전통지식과 이용』(2018) 증보판을 발간하였다.

전통지식이 빠르게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국립수목원은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이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전통지식에 기반한 야생화의 자원화·산업화를 위한 활용법 개발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통지식은 무형의 지식체계로 유·무형의 창조물과 생태적 진화과정이 수반된다. 구전조사 등을 통해 전통지식을 수집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민속식물을 자원화 하는 것은 민속식물에 대한 주권확보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단일 종에 대한 집중적인 인문·자연과학적 탐구를 통해 해당 종에 대한 정보를 심도 있게 총망라해보는 것도 민속식물에 대한 주권확보, 그리고 더 나아

가 우리 민족이 해당 종과 관련하여 발달시켜온 문화를 알리고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수목원은 이를 위해 ‘전통지식 기반의 야생화 활용법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단일 식물 종에 대한 연구(이름의 유래, 역사, 활용법 등)를 진행하였으며, 그 첫번째 대상으로서 우리 선조들의 삶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명칭과 관련한 혼동이 있어 보다 많은 탐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 ‘해당화’를 선택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지속 가능한 생활자원으로서의 식물의 중요함을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 책이 우리 조상이 가졌던 식물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폭넓게 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례

---

# 해당화의 자연사와 문화사

서언

- 1 | 식물학적 관점으로 본 해당화
  - 2 | ‘해당’이라는 명칭에 얽힌 혼동
  - 3 | 문화적 관점으로 본 해당화
  - 4 | 해당화의 재배사와 재배법 및 재배품종들
  - 5 | 참고문헌
-

# 동방에 바로 해당향이 있나니

-전략-

매괴 어떡하면 더 새롭게 단장할까 玫瑰爭得比新粧

하늘이 가인 보내 홀로 뽐내게 하였어라 天遣佳人獨擅場

시인의 한평생 한을 푸는 데에는 解釋詩人一生恨

동방에 바로 해당향이 있나니 東方却有海棠香

-후략-

- 이식李植, <일직촌 一直村의 권씨 별장에서 절물節物을 읊은 절구>

매년 5월 즈음이 되면 파도가 물보라치는 험준한 바위 위로 아침햇살이 빛나는 동해안으로부터 광활한 갯벌 위로 석양이 붉은 서해안까지 우리나라의 온 바닷가에 해당화가 피어나기 시작한다. 강 하구와 바닷가의 모래톱, 해안 사구, 바위 사이, 해안림의 가장자리 등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해당화는 악조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명한 자줏빛의 곱고 향기로운 꽃을 점점이 피워 해안을 물들인다. 여느 자생 장미류는 6월이 지나 한여름이 찾아오면 꽃을 거두고 오로지 열매를 키워내는데만 온 힘을 다하지만, 해당화는 열매를 맺으면서도 꽃을 계속 피운다. 날이 눈에 띄게 짧아지고 겨울철의 추위가 서서히 가까워지는 10월 말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꽃을 피우는 해당화는 늦여름 이미 붉게 익은 열매 사이로 여전히 초여름인마냥 선명한 꽃을 피운 모습 보이기도 한다. 그 꽃과 열매의 고운 색과 형상은 역센 가시와 반들반들하면서도 주름진 두터운 잎과의 대비를 통해 더욱 부각된다. 무척 강인한 아름다움을 지닌 식물이다.

## 동방에 바로 해당향이 있나니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화는 매화나 국화, 모란마냥 예로부터 대접 받아온 꽃은 아니었다. 해당화와 관련된 유명한 고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옛 성인들이 높이 평가한 꽃도 아니었기에, 매·란·국·죽 등 옛 선비들이 즐겨 길렀던 다른 화훼류 마냥 특별한 상징성을 지니지도 못하였다. 다만 중국에서 꽃사과 종류를 ‘해당’이라 칭하기에, 꽃사과에 얽힌 유명한 고사와 시들을 옛 선조들이 해당화에 대한 것으로 착각하고 시에 잘못 차용하곤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선조들의 눈에 해당화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관동지역의 풍광을 읊은 시에서 해당화는 중요한 소재로서 빠지지 않았고, 장산꽃의 모래사장부터 두만강변의 모래톱까지 해당화가 피는 곳이면 그를 다룬 시가 반드시 있어왔다. 비록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 星湖僉說>에서 해당화를 “꽃 중에 제일 품질이 나빠서 보잘것이 없다”라 평하였지만, 용재 성현이나 간이 최립과 같이 해당화를 정원에 가꾸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취해 시로 읊은 문인들도 있었다. 또 해당화는 민초들의 삶과도 닿아있었다. 과실로서, 약으로서 유용히 활용되었고, 또 계절 따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안을 주었던 해당화는 민요와 판소리의 구절에 실리기도 하였고, 척박한 환경에서 매년 피고 지는 그 모습은 굶주림 사설과 상여소리에서 삶의 유한성을 부각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해당화는 우리에게 가까운 듯 하면서도 먼 꽃이다. 해당화는 대중가요의 가사에도 등장하고, 학교 교과서에 실린 고전문학에서도 종종 언급되지만, 실제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식물원이나

해안가의 관광지, 가끔은 동네공원 등 도시녹지에 심겨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정원이나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가꾸지는 않는다. 해당화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이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장미 중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티Hybrid Tea 계열의 재배품종과 달리 해당화는 건조, 해풍, 심지어는 섭씨 영하 40도의 겨울기온에도 견딜 수 있는 강건한 식물로 별만 잘 든다면 별다른 관리가 필요없는 식물이다. 또 야생에서 흔히 보이는 홑꽃의 해당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겹꽃의 재배품종이나 백색, 황색 등 다채로운 색을 지닌 해당화 교배종들이 있어 관상가치 역시 뛰어나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하면 보다 널리 정원식물로서 활용될 만한 가치가 있는 식물이라 생각된다.

이 책을 쓰기 위해 해당화의 문화사와 자연사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화에 얽힌 선조들의 재미난 이야기, 바닷가라는 험난한 환경에서 진화하면서 해당화가 획득한 신기할 정도의 강건함, 실용적인 다양한 쓰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꽃과 열매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해당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매료되게 되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도 해당화의 매력을 알리고 마당이나 별이 잘 드는 베란다에서 직접 가꾸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1. 식물학적 관점으로 본 해당화

---

❁ | 해당화의 형태적 특징

❁ | 해당화의 분류

❁ | 해당화의 생리적 특성 및 생태

❁ | 해당화의 분포범위와 침입종으로서의 해당화

---

## 명사 일대 바닷가는 온통 해당화 천지인데

명사 일대 바닷가는 온통 해당화 천지인데 鳴沙一帶海棠洲  
늪은 원님 게을러서 나가지 못하니 어떡하나 老守其如懶出遊  
담 아래 핀 가지 몇 개 꽃이야 다를 게 없으리니 牆下數枝花色是  
흰 물새와 성근 비는 멀리서 그 풍류 맛보련다 白鷗疎雨領風流

- 최립崔岾, 「해당화海棠」

해당화는 문학작품이나 노래의 가사 등에 흔히 등장하는 식물이다. 그러나 개나리 *Forsythia viridissima* var. *koreana* Rehder나 철쭉류 *Rhododendron* spp.와 달리 바닷가에 주로 자라기 때문에 실물을 보기는 어려운 편이다. 그러므로 많은 이에 게 해당화는 친숙한 듯 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식물일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해당화가 어떤 식물인지 알아보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해당화의 식물학적 측면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동해안 바닷가에서 자라는 해당화

## 🌸 | 해당화의 형태적 특징

해당화는 높이 1.5~2m의 낙엽관목으로, 근관에서 흡지와 근경을 내어 밀집된 균락을 이루는 습성이 있다.

**근경** | 목질이며 색상은 주황색을 띠는 갈색이고 삼각형의 비늘잎을 지닌다.

**줄기** | 대체로 직립하고 색상은 옅은 황갈색이며, 용모로 덮여 있고 가시와 자모가 매우 많다. 가시는 추형<sup>錐形</sup>으로 가늘고 곧으며 누런빛을 띠고 여러 크기가 섞여 나며 가시의 기부에 용모가 있다.

**잎** | 기수우상복엽으로 어긋나며 전체 길이는 5~13cm 가량이며 5~9장의 소엽이 달린다. 소엽은 크기 1.5~6×1~3cm로 타원형 혹은 타원상 도란형이며 혁질로 두껍다. 전면은 어두운 녹색으로 윤이 나고 털이 없으며 엽맥이 함몰되어 주름져 있지만 배면은 회색을 띠는 녹색으로 털이 많고 엽맥이 돌출되어 있으며 선점이 있다. 엽두(잎의 말단)는 예두<sup>銳頭</sup> 혹은 둔두<sup>鈍頭</sup>이고, 엽저(잎의 기부)는 원저 혹은 넓은 설저<sup>楔底</sup>이며, 엽연(잎의 가장자리)는 거치가 있으며 안쪽으로 약간 말려 있다. 잎자루와 엽축은 용모로 덮여 있으며 간혹 작은 가시가 몇 개 난다. 잎자루의 기부에 달리는 탁엽은 잎자루에 거의 합생하며, 크기 2.5×1~1.5cm로 난형 내지는 삼각형이며 배면은 용모로 덮여 있고 가장자리에는 선모가 있다.

**꽃** | 단독으로 달리거나 몇 송이가 모여 나며, 직경 6~9cm이다. 화병은 길이 0.5~2.5cm로 털이 있고 자모 같은 선모가 나며, 화탁은 납작한 구형으로 털이 없다. 꽃받침은 5장으로, 길이 2~3cm이며 피침형 혹은 난상피침형으로 잎 같은 형태를 띠기도 한다. 꽃잎은 5장으로, 색상은 적자색 혹은 백색이며 도란형으로 기부는 설저, 말단은 요두이다. 수술은 200~250개 가량 달리며, 암술은 이생하며 털이 있고 수술보다 길이가 짧다.

**열매** | 장미속의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화탁이 육질로 발달하여 항아리 모양을 이루고 그 안에 다수의 수과<sup>瘦果</sup>가 달린 장미과<sup>薔薇果</sup>이다. 결실기에



▲ 해당화의 꽃봉오리(왼쪽)와 꽃(오른쪽)

▼ 해당화의 열매(왼쪽)와 줄기(오른쪽)

이르면 화탁의 크기는 길이 1.5~2cm, 직경 2~2.5cm로 자라고, 색상은 적색으로 변하며, 과병이 굽어 아래를 향하게 된다. 수과는 둔하게 각져 있는 난형으로, 색상은 엷은 황갈색이나 주황빛을 띠는 황갈색으로 표면에 윤기가 있으며, 크기는 길이 4~6mm, 직경 2~2.6mm이고, 배측과 복측에 봉합부가 뚜렷하며 제<sub>1</sub>는 수과의 기부에 있다.

## ❁ | 해당화의 분류

역사적으로 식물의 분류 기준과 체계는 계속 바뀌어 왔고, 그에 따라 해당화를 비롯한 장미 속의 식물들 역시 달리 분류되어 왔다. 근대 유럽에서 과학적 방법론이 등장하기 이전 식물의 분류는 단순히 각 식물의 형태나 용도 등 사람에게 중요하거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예컨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테오프라스토스(Theophrastus)는 식물을 형상과 습성, 분포지 및 원산지, 이용방법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임의로 나누었고, 후대의 디오스코리데스(Dioscorides)는 식물을 용도에 따라 향료용, 식용, 약용, 양조<sub>釀造</sub>용의 네 분류로 나누었다. 해당화의 원산지인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본초학에서도 옛 유럽과 마찬가지로 용도나 사람에게 쉽게 인식되는 몇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식물을 분류했다. 중국 송대의 문인 양만리(楊萬里)의 시 「홍매괴(紅玫瑰)」를 보면 과거 동아시아에서 해당화를 비롯한 장미류가 어떻게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월계화와는 다르지만 이름이 같고 非關月季姓名同  
 장미의 무리도 아니나 족보는 통하네 不與薔薇譜牒通  
 잎과 가지는 서로 닿아 매우 푸르고 接葉連枝千萬綠  
 한 꽃에 두 색이 열고 짙은 붉음이라 一花兩色淺深紅  
 풍류는 각자 연지를 찍은 듯 風流各自胭脂格  
 비와 이슬의 어떤 사사로운 조화의 공인지 雨露何私造化功  
 국향이 따로 있어 취한들 그에 미치지 못하나 別有國香收不得



▲ 해당화 ▼ 해당화 교배종 'Blanc Double de Coubert'

시인은 향기에 빠져 물에 잠긴 듯 하네 詩人薰入水沉中

- 양만리楊萬里, 「홍매괴紅玫瑰」

월계화와는 다르게 장미의 무리도 아니라고 쓴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장미류를 크게 장미薔薇, 월계月季, 매괴玫瑰의 세 종류로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문헌에 기록된 각각의 특성에 기반하여 추정해 볼 때 월계는 일 년 내내 꽃을 피우는 사계성의 종류들을 지칭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장미는 다소 불명확하나 덩굴성으로 시렁이나 담에 올려 키우는 종류로서 특히 한철에만 꽃을 피우는 일계성의 종류를 지칭했던 것으로 보이고, 매괴는 향이 짙으며 가시가 많은 관목성의 장미 종류를 통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래 장미 재배품종 중에서 살펴보자면, *Rosa chinensis* 'Old Blush', *Rosa chinensis* 'Slater's Crimson China', *Rosa* 'Mutabilis' 등 월계화 *Rosa chinensis* Jacq.나 *Rosa* × *odorata* (Andrews) Sweet의 재배품종 중 사계성인 것들이 월계로, *Rosa chinensis* 'Fortune's Five Colored Rose' 나 *Rosa* × *odorata* 'Fortune's Double Yellow' 등 월계화나 *Rosa* × *odorata* 의 덩굴성 재배품종들, 그리고 *Rosa* 'Carnea'나 *Rosa* 'Seven Sisters' 등 짙레꽃 *Rosa multiflora* Thunb.의 교배종들이 장미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화와 그 재배품종 및 교배종들은 노랑해당화 *Rosa xanthina* Lindl. 등과 더불어 매괴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1</sup>

이후 해당화가 최초로 유럽 식물학자에게 발견되어 근대적인 식물분류체계에 의거하여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다. 해당화의 학명 *Rosa rugosa* Thunb.는 1775년 8월부터 1776년 11월까지 일본 나가사키 데지마의 네덜란드 무역기지에서 의사로 근무했던 스웨덴 식물학자 칼 페테르 툰베리Carl Peter Thunberg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1785년 『Systema Vegetabilium』에 출판되었다. 툰베리는 1년여 간의 일본 체류기간 동안 일본의 식물상을 관찰한 내용을

1 이 외에 장미류의 식물을 지칭하는 한문명으로 목향화木香, 도미荼靡, 금앵자金櫻子, 소사화繡絲花, 자리刺梨 등이 있는데, 목향은 목향장미*Rosa banksiae* W.T.Aiton와 그 재배품종들을, 도미는 *Rosa* 'Fortuniana' 내지는 *Rubus rosifolius* 'Coronarius'를, 금앵자는 *Rosa laevigata*를, 소사화와 자리는 밤해당화*Rosa roxburghii* Tratt.를 지칭하는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식물지Flora Japonica』로 정리하였는데<sup>2</sup>, 그는 이 책에서 오늘날 분류학의 창시자로 평가되는 칼 폰 린네Carl von Linné의 분류체계를 따랐다. 린네가 제안한 분류체계는 식물을 암술과 수술의 수 등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형태적 특성을 기준으로 나누는 인위분류법이었는데, 이러한 린네식 분류체계 하에서 해당화는 'Icosandria Polygynia', 즉 '20개 이상의 수술과 12개 이상의 암술을 지닌 식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린네의 분류법은 간명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된 특성만으로 식물들을 같은 분류군으로 묶는다는 점으로 인해 실제 식물 간의 유사성 내지는 연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녔다. 예컨대, 망고 *Mangifera indica* L.와 강황*Curcuma longa* L.은 진화적 유연관계가 멀어 형태나 생육습성, 생리, 생태 등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지만 린네식 분류체계 하에서는 둘 다 수술을 하나씩만 지닌다는<sup>3</sup> 공통점으로 인해 같은 분류단위로 묶였다.

인위분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린네 이후로도 식물학자들은 계속 새로운 분류체계를 고안하였으며, 프랑스의 미셸 아당송Michel Adanson의 분류체계를 필두로 하여 여러 가지의 형질을 동시에 비교하여 분류군 간의 전체적인 관련성, 즉 유연관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자연분류체계가 등장하게 되었다. 해당화를 비롯한 장미속이 처음으로 자연분류체계에 따라 정리된 것은 19세기 스위스 식물학자 오귀스탱 피라무스 드 캉돌Augustin Pyramus de Candolle에 의해서였는데, 그는 1818년의 논문에서 장미속을 크게 주두가 합쳐지는지 갈라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누고, 세부적으로 다시 *Synstyleae* DC., *Rubigineae* DC., *Gallicanae* DC., *Chinenses* DC., *Cinnamomeae* DC., *Hebecladae* DC., *Pimpinellifoliae* DC., *Villosae* DC., *Centifoliae* DC., *Caninae* DC., *Eglanteriae* DC.의 11개 하위군으

2 그러나 *Rosa rugosa* Thunb.의 원기재문은 이 책에 실린 기재문이 아닌, 요한 안드레아스 머레이Johan Andreas Murray가 린네의 『Systema Naturae』 중 식물을 다룬 장(Regnum Vegetabile)을 증보하여 작성한 『Systema Vegetabilium』에 실린 기재문이다. 이는 툰베리가 머레이에게 보내준 『일본식물지』의 원고에 담긴 내용이 툰베리의 『일본식물지』보다 2~3개월 앞서 출간된 『Systema Vegetabilium』에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3 망고의 경우 5개, 강황의 경우 6개의 수술이 처음에 발생하나 그중 하나만이 정상적인 수술로 발달하고 나머지는 헛수술이 된다.

로 나누었다. 해당화는 이 중 *Hebecladae*<sup>4</sup>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강돌 외에도 영국의 존 린들리 John Lindley 등 여러 식물학자가 가지의 형태, 줄기에 난 가시의 밀도, 선모의 발생 여부 등 다양한 특성에 근거한 장미속의 분류를 제시하였으나, 이 중 가장 간명하고 염색체 수와 높은 관련성을 보여 오늘날까지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류는 미국 아놀드수목원에 근무하던 수목학자 알프레드 레더 Alfred Rehder가 1940년에 제시한 분류이다. 레더는 장미속을 크게 *Eurosa* Focke, *Hulthemia* (Dumort.) Focke, *Platyhrodon* (Hurst) Rehder, *Hesperhodos* (Cockerell) Rehder의 네 아속으로 나누었고, 이 중 *Eurosa*아속을 다시 *Pimpinellifoliae* DC. ex Ser., *Gallicanae* Crép., *Caninae* (DC. ex Ser.) H.Christ, *Carolinae* Crep., *Cinnamomeae* DC. ex Ser., *Synstylae* DC., *Indicae* Thory<sup>5</sup>, *Banksianae* Lindl., *Laevigatae* Thory, *Bracteatae* Thory의 10개의 절로 세분하였다. 해당화는 이 중 *Eurosa*아속의 *Cinnamomeae*절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는데, 2005년 제17회 국제식물학회에서 장미속의 모식종이 기존의 *Rosa × centifolia* L.로부터 *Rosa majalis* Herrm.(이명 *Rosa cinnamomea* L.)로 변경됨에 따라<sup>6</sup> 국제식물명명규약<sup>7</sup>에 의거하여 모식종이 속한 *Eurosa*아속과 *Cinnamomeae*절이 *Rosa*아속과 *Rosa*절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해당화도 *Rosa*아속 *Rosa*절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오늘날에는 레더의 분류에 대해 *Rosa*절과 *Pimpinellifoliae* 및 *Carolinae*절, 그리고 *Synstylae* 절과 *Chinenses* 및 *Gallicanae* 절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고 인위적이라는 점, *Caninae*절의 분류가 분자계통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과 일

4 강돌은 암술이 갈라지고, 열매는 구형이며, 약편萼片은 전연全緣이고, 가시가 매우 많으며, 줄기에는 털이 많은 종들을 이 분류군으로 나누었다.

5 현재는 *Chinenses* DC. ex Ser. 가 선취권을 지니는 것으로 판명되어 *Chinenses* 절로 불리고 있다.

6 1913년 Nathaniel Lord Britton과 Addison Brown은 *Rosa × centifolia* L.의 표본을 선정기준표본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1976년 Gordon Douglas Rowley는 *Rosa × centifolia*가 재배 하에서 여러 절에 속한 종 간의 교잡을 통해 형성된 겹꽃이 피는 불임성의 종이라는 점을 들어 모식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신 *Rosa cinnamomea* L.을 모식종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2년 Charles Edward Jarvis는 Rowley의 의견을 인용하여 모식종의 변경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은 제15회와 제16회 국제식물학회에서는 기각되었으나 제17회 국제식물학회에서 채택되었다.

7 국제식물명명규약 6조 8항, 22조 1~3항, 26조 1~3항 참고.

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과 같은 한계가 지적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레더의 체계를 완벽히 대체할 만한 새로운 체계가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레더의 체계 내에서 해당화가 속하는 *Rosa*절에는 약 80여 종이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암술대가 서로 떨어져 있고, 꽃받침이 꽃이 진 후 직립하며 탈리하지 않고, 화서가 포엽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자생 장미류 중에서는 인가목 *Rosa acicularis* Lindl., 생열귀나무 *Rosa davurica* var. *davurica*, 붉은인가목 *Rosa davurica* var. *alpestris* (Nakai) Kitag.의 세 분류군이 *Rosa*절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는데<sup>8</sup>,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a. 소지에 가시와 털이 있다. 잎에 주름이 많다. 열매에 가시가 발달한다. 꽃이 크다(6cm) ..... *Rosa rugosa* 해당화
- 1a. 소지에 가시와 털이 없다. 잎에 주름이 없다. 열매에 가시가 없다. 꽃이 작다(4~5cm).
  - 2b. 꽃자루가 길다(2~3.5cm). 열매가 원형 혹은 긴타원형이다. 소엽은 5~9개, 잎에 선점이 있거나 없다.
    - 3c. 열매는 원형이다. 앞면 뒷면에 선점이 있고, 소엽은 7~9개이다. 꽃 색깔은 분홍색이다 ..... *Rosa davurica* var. *davurica* 생열귀나무
    - 3c. 열매는 긴타원형(선형)이다. 앞 뒷면에 선점이 없고, 소엽은 (3)5~7개이다. 꽃 색깔은 흰색 혹은 짙은 적색이다 ..... *Rosa acicularis* 인가목
  - 2b. 꽃자루가 짧다(1~1.5cm). 열매는 원형이다. 소엽은 5~7개이며, 잎에 선점이 없다 ..... *Rosa davurica* var. *alpestris* 붉은인가목 (Chang & Kim, 2015)

한편 우리나라에서 해당화라 불리는 식물의 학명을 살펴보면 튜베리에 의해 최초로 명명된 학명인 *Rosa rugosa* Thunb. 외에도 여러 학명이 있다. 학명은 본디

8 또한 일반적으로 *Pimpinellifoliae*절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는 흰인가목 *Rosa koreana* Kom.에 대해서도 *Rosa*절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Roberts, 1977; Bruneau et al., 2007).

생물을 분류함에 있어서 각 분류군의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생겨난 개념이기에 한 분류군에는 하나의 학명만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하나의 분류학적 실체에 대해 여러 개의 학명이 부여되기도 한다. 이렇게 동일한 분류군을 지칭하는 복수의 학명이 있는 경우 이들을 이명(synonym)이라고 한다. 모든 학명은 해당 학명이 지칭하는 분류학적 실체를 대표하고 지칭대상의 범위를 한계짓기 위한 기준으로서 지정되는 석엽표본 혹은 그림인 기준표본(type)을 지니는데, 이명들은 이 기준표본이 서로 같은지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준표본이 같은 경우를 명명법적 이명(nomenclatural synonym) 혹은 동형이명(homotypic synonym)이라 칭하고, 기준표본이 다른 경우를 분류학적 이명(taxonomic synonym) 혹은 이형이명(heterotypic synonym)이라고 칭한다. 명명법적인 이명은 대개 어느 종을 한 속에서 다른 속으로 이전하거나, 특정 종의 아종, 변종 등 하위분류군으로 취급되던 분류군을 별도의 종으로 격상시키는 등 분류학적 계급이 바뀔 때 발생하며, 분류학적 이명은 서로 다른 것으로 여겨지던 분류군이 추후 연구를 통해 같은 분류군인 것으로 밝혀져 통합되는 경우나, 연구자가 특정 분류군이 이미 명명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이름을 제시한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명이 발생한 경우 국제식물명명규약에 규정된 선취권의 원칙에 따라 이명 중 가장 먼저 발표된 학명이 해당 분류군을 지칭하는 올바른 이름, 즉 정명(correct name)이 된다. 연구를 통한 새로운 사실의 축적으로 인해 관점이 갱신됨에 따라 한 식물의 분류에 있어 분류학적 계급이 바뀌거나 서로 다른 종으로 여겨지던 것이 한 종으로 합쳐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기에, 어떤 식물을 논하고자 할 때는 혼동이 없도록 이명(synonym)을 먼저 정리하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대다수의 식물학자들이 *Rosa rugosa*의 이명으로 간주하는 학명은 다음과 같다.

*Rosa ferox* Lawrance Collect. Roses Nat.: t. 42 (1797)

*Rosa kamtchatica* Vent. Descr. Pl. Nouv.: t. 67 (1802)

*Rosa coruscans* Waitz ex Link, Enum. Hort. Berol. Alt. 2: 57 (1822)

*Rosa regaliana* Linden & André, Ill. Hort. 18: 11 (1871)

*Rosa andreae* Lange, Index Seminum (C, Hauniensi) 1874: 23 (1874)



▲ 『Collection of Roses from Nature』에 실린 *Rosa ferox*의 세밀화

각 학명이 무엇을 지칭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표본과 학명이 지칭하는 식물의 특징을 서술한 원기재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Rosa ferox*는 1797년 영국의 여류화가 메리 로렌스Mary Lawrence가 발표하였으며, 세밀화집 『Collection of Roses from Nature』에 출판된 학명이다. 원기재문은 다음과 같다.

*R. germinibus globosis hispidis, foliolis saepe novem, caule petiolis ramulisque ferocissime spinosis.*

Hedge-Hog Rose

Nat. of Mount Caucasus

*Rosa kamtchatica*는 1802년 프랑스의 식물학자 에띠엔 피에르 방트나Étienne Pierre Ventenat에 의해 발표된 학명으로, 파리 외곽의 뽀띠 몽루즈에서 종묘상을 운영하던 원예가 자크 필립 마르탱 셀스Jacques Philippe Martin Cels가 정원에서 재배하고 있던, 당대 유럽에 새로 도입된 식물들을 기술한 『Description des plantes nouvelles et peu connues, cultivées dans le jardin de J. M. Cels』에 출판되었다. 원기재문은 다음과 같다.

*Rosa germinibus pedunculisque, glabris; caule aculeatissimo, hirsuto; petiolis subinermibus; foliolis obovatis.*

Arbrisseau croissant naturellement au Kamtchatka, cultivé depuis plusieurs années chez Cels. Il passe l'hiver en pleine terre, et fleurit sur la fin du printemps.

*Rosa coruscans*는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칼 바이츠Friedrich August Carl Waitz가 유효하게 발표하지 못한 이름에 근간하여 1822년 독일의 식물학자 요한 하인리히 프리드리히 링크Johann Heinrich Friedrich Link가 발표한 학명으로, 링크가 근무하던 베를린 왕립식물원에서 재배되던 식물들의 목록 『Enumeratio plantarum Horti regii botanici berolinensis altera』의 제2권에 출판되었다. 원기재문은 다음과 같다.



▲ 『Description des plantes nouvelles et peu connues, cultivées dans le jardin de J. M. Cels』에 실린 *Rosa kamtchatica*의 세밀화

Caule setoso-spinosissimo, petiolis pubescentibus foliis oblongo lanceolatis acuminatis serratis glabris, ped. nudis, calicis tubo globoso nudo, laciniis margine tomentosus.

*Rosa regiana*는 1871년 벨기에의 식물학자 장 쥘 린덴(Jean Jules Linden)과 프랑스의 원예가 에두아르 프랑수와 앙드레(Édouard François André)가 원예잡지 『L' Illustration horticole』에 발표한 학명이다. 원기재문은 다음과 같다.

*Suffrutex* dumosus, ramis brevibus primum flexuosis humifusis mox erectis tomentosus, cinereo-griseis; *aculei* numerosi, graciles, inaequales, albi, subulati, pilis glandulosis caducis intermixti; *petioli* tomentosi, cinerascens, sparse aculeati; *stipulae* latissimae, foliaceae, subtus *glaucoscentes*, irregulariter dentatae, auriculis divergentibus erectis oblique acuminatis acutis; *folia* longe petiolata, foliolis-5 saepissime-7 distantibus, patulis, robustis, subsessilibus, saepe subalternis, laete viridibus, ovato-ellipticis crenatis, mucronatis supra rugosis, glabris, subtus tomentosocanescentibus reticulato-nervatis; *corymbi* terminales multiflori; *pedunculi* tomentosi aculeati, bracteis foliaceis glaucoscentibus ovato-acuminatis acutis denticulato-ciliatis; calycis tubus globosus, 5-6-8 sepalis reflexis ovatis longissime acuminatis integris vix appendiculatis ciliato-lanatis argenteis; *corolla* magna (0<sup>m</sup>, 08 diam.) campaniformis, punicea, *petalis*-5 amplis ovato-obtusis late unguiculatis; *styli* breves discum convexum mammosum superantes; *bacca* sphaerica (diam. 0<sup>m</sup>, 45), succulenta, viride rubra, calyce accrescente coronata, seminibus ovoideo-cuneatis lateraliter compressis, medio sulcatis. — Legit in Japonia cl. Maximowicz, unde misit in Europam. anno 1868. Vidi vivam florentem et descripsi in horto Lindeniano. — Ed. A.



▲ 『L' Illustration horticole』에 실린 *Rosa regiana*의 세밀화

*Rosa andreae*는 1874년 요한 마르틴 크리스티안 랑에(Johan Martin Christian Lange)가 코펜하겐 대학교 식물원의 종자목록인 『Index Seminum in horto academico Hauniensi』에 출판한 학명으로 원기재문은 다음과 같다.

Rosa Andreae Lge. ad int., frutex, ut videtur, humilis sed robusta, caule pubescente et dense aculeato, aculeis inaequalibus, rectis, puberulis; foliis impari -2-3 jugis, foliorum inferiorum stipulis angustis, superiorum sensim latioribus, glanduloso-serratis, foliolis parvis ovalibus, (½-1 pollicaribus), crenato-serrulatis (crenarum marginibus reflexis), supra obscure viridibus, glabris, fere lucidis, depresso-reticulato-rugulosis, subtus dense cano puberulis; flore magno, subsolitario, inter stipulas bracteales submembranaceo-dilatatas suboculto, pedicello brevissimo; calysis laciniis corolla longe brevioribus, acuminatis, apicem versus lanceolato-dilatatis, integerrimis; petalis latis, retusis, pulchre et saturate kermesinis; hypanthio valde et subdisciformi-depresso, fusco, glaberrimo.

In insula Sachalin plantam legit 1870 navarchus Andrea, in cujus, pro Museis nostris indefatigati collectoris honorem hanc speciem nominavi.

기준표본 및 원기재문에 근거하여 오늘날 대다수의 식물학자는 상기 학명들을 모두 *Rosa rugosa*의 분류학적 이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Rosa kamtchatica*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데, 이는 오랫동안 유럽에서 ‘캄차카장미(Le rosier de Kamtschatka)’라는 일반명으로 불려온 분류군과 연관이 있다. 오늘날에는 해당화와 생열귀나무 간의 교잡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캄차카장미’는 일부 특성을 제외하고는 외형적으로 해당화와 매우 유사하며, 그로 인해 과거 유럽의 원예가들에 의해 해당화와 구분없이 섞여서 재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캄차카장미’와 해당화가 동일한 분류군인지에 대해서 유럽의 식물학자 및 원예가 사이에 오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영국의 식물학자 존 벨렌덴 커 가울러(John Bellenden

Ker Gawler)와 존 린들리가 각각 『The Botanical Register』와 『Rosarum Monographia』에 묘사한 바를 살펴보면 그 형태적, 생태적 특징에 있어서 몇몇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여 그 둘을 서로 다른 분류군으로 볼 여지가 있다.

In *kamtchatica* the leaves are less shining, and the stem less prickly than in *ferox*. In the latter the prickles immediately under the stipulae and those of the branches are equal in size, and of nearly the same form; but in *kamtchatica* the stipulary prickles are large and flaccate, those of the branches setiform and minute. *Ferox* retains its leaves and their verdure till late in the autumn, those of *kamtchatica* fall off soon after the summer heat has commenced.

- John Bellenden Ker Gawler, 『The Botanical Register』

Besides the distinction in the arms on which their specific character is founded, I may add that *R. kamtchatica* is a taller plant than *R. ferox*; its leaves are opaque, not shining, smaller, and with a different outline, changing colour and falling off in the very beginning of autumn, long before those of *R. ferox* are withered; its fruit is also smaller and shorter than the sepals, which do not appear to have any disposition to become compound.

(중략)

- Div. II. Feroces. Rami tomento persistente vestiti. Fructus nudus.
2. *R. ferox*, armis confertissimis inaequalibus conformibus.
  3. *R. rugosa*, armis confertissimis subaequalibus pedunculo aculeate.
  4. *R. kamtchatica*, aculeis infrastipularibus falcatis majoribus, foliis opacis.

- John Lindley, 『Rosarum Monographia』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커 가울러와 린들리의 글에서처럼, 많은 과거의 식물학자들은 *Rosa kamtchatica*를 ‘캄차카장미’를 지칭하는 학명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방트나가 작성한 *Rosa kamtchatica*의 원기재문 및 기준표본이 되는 삽화를 살펴보면 그에 기술 및 묘사된 특성만으로는 해당화가 아닌 ‘캄차카장미’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실히 결론내리기 힘들다. 또 *Rosa kamtchatica*의 기준표본을 그린 화가 피에르-조셉 르두테[Pierre-Joseph Redouté]는 1817년에 출간된 그의 세밀화집 『Les Roses』의 제1권에서 방트나가 원기재문을 쓰기 위해 관찰했던 식물이 자라면서 캄차카장미 같은 형태에서 *Rosa ferox*와 같은 형태로 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비록 발표 당시 캄차카장미로 잘못 인식되긴 하였으나 *Rosa kamtchatica*의 기준표본은 실제로는 해당화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러하다면 기준표본의 실체가 명명자의 의도보다 우선하므로 *Rosa kamtchatica*와 이를 기본명[Basionym]으로 하는 *Rosa rugosa* var. *kamtschatica* (Vent.) Regel 등의 학명은 모두 *Rosa rugosa*의 분류학적 이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오늘날 몇몇 식물학자들은 이 문제의 분류군을 지칭하기 위한 학명으로 “*Rosa hollandica*” (Pers. ex Steud., Nomencl. Bot. [Steudel] 699. 1821)를 사용하기도 하나, 이 이름은 나명[Nomen nudum], 즉 학명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기준표본 및 원기재문을 지니지 못한 이름으로서, 학명으로서 쓸 수 없는 이름이다.

한편, 해당화에 비해 잎에 윤채가 없고, 잎의 크기와 형태가 보다 작고 좁으며, 전반적으로 가시가 적고 특히 소지에는 엽병 아래에 쌍으로 나는 검상의 가시만 존재하여 ‘캄차카장미’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식물이 국내에서는 만첩해당화, 일본에서는 마이카이[マイカイ], 중국에서는 홍자매[紅刺玫]라는 이름으로 종종 재배되고 있다. 일본의 식물학자 하라 히로시[原寛]는 이에 *Rosa maikwai* H.Hara라는 학명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보면 동아시아에서도 구미권에서와 유사한 혼동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 | 해당화의 생리적 특성 및 생태

지금까지 해당화의 분류를 살펴봄으로써 해당화와 근연한 다른 종과의 관계 및



▲ 『The Botanical Register』 제5권에 실린 ‘캄차카장미’(왼쪽)와 해당화(오른쪽)의 세밀화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해당화는 어떤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한 환경 조건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일까?

시나 민요에서 관용적으로 등장하는 문구 ‘명사십리 해당화’에서 잘 드러나듯이, 해당화는 자갈이 많이 퇴적되어 투수성이 좋은 곳이나 고정사구, 건조한 구릉지 등 해안과 인접하면서 건조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조건과 높은 광조건이 나타나는 곳에서 자란다. 간혹 도로공사에 사용된 모래나 자갈에 종자가 혼입되어 내륙지역에서도 도로변을 따라 나타나기도 하나, 교란 없이는 주변 식생으로 침입하지 못하며, 해안지대에서도 장초형 초지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보기 드물다. 즉 벌이 잘 들고 토양조건이 건조한 사질토라는 조건이 아닌 곳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종인 것이다. 그러나 생육조건이 적합한 위치에서는 다른 식물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 고밀도의 단일군락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염분이 함유된 해풍이 항시 부는 건조한 해안사구에서 해당화가 높은 경쟁력을 지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이다. 첫째로 해당화는 내건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형태적 특성들을 지닌다. 해당화는 식물체 전체에 털이 많고 잎이 두꺼운데, 이러한 특성은 증산에 의한 수분의 손실을 줄인다. 또한 해당화는 최장 2m 깊이까지 뿌리를 뻗을 수 있는데, 지하수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 역시 내건성에 기여한다. 둘째로, 해당화는 불리한 환경에서 생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지닌다. 해당화는 높은 생리적 내건성을 지니는데, 이 덕에 0.25 노르말(N) 농도까지는 염수를 관수하여도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해당화는 앞에서 다양한 이차대사산물을 합성하고, 그 중 일부를 잎에 난 선모로부터 분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차대사산물들의 일차적 기능은 강한 자외선과 부족한 토양수분, 염분이 함유된 해풍 등 해안가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식물체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 중 rugosal A를 비롯한 세스퀴테르펜류는 강한 항미생물작용 및 초식성 곤충에 대한 기피효과를 발휘해 해당화가 강한 내병충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다. 셋째로 해당화는 표현형의 가소성이 높아 사구와 같이 교란이 심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 리투아니아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바람이 약하고 토양조건이 상대적으로 비옥하며 산도는 중성에 가까워 생육에 보다 적합한 조건에서 자란 해당화는 1.5m 혹은 그 이상의 높이까지 자란 반면, 바람이 많고 토양이 산성을 띠며 건조한 사구의 남사면에서 자란 해당화는 그 높이가 20~50cm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환



▲ 서해안 신두리의 사구에 자란 해당화 © geobook

경과 생육량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간 결실량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고 한다. 즉 환경에 따라 유연한 생육반응을 나타냄으로써 번식력을 유지한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식물은 토사 등에 덮이거나 너무 깊게 심어지면 질식사하여 죽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해당화의 경우 모래땅에서는 본래 식재 깊이보다 30cm 깊게 식재되어도 생존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개엽시기가 빨라지고 내건성이 증진되는 등 긍정적인 생육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화가 아무리 강한 내환경성 및 내병충해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번식능력이 떨어졌다면 그 분포지에서 우점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해당화의 꽃은 화밀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풍부한 화분과 강한 향기로 화분매개체를 유인한다. 꽃 하나하나의 수명은 보통 이틀에 불과하나, 5월에서 6월에 이르는 주 개화기가 끝난 뒤로도 서리가 내릴 때까지 간헐적인 개화를 지속하므로 개화기 자체는 매우 긴 편이다. 수정은 주로 꿀벌과의 곤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화의 열매는 7월 말부터 익기 시작하는데, 덴마크에서 관찰된 바에 따르면 열매 하나당 최소 20립에서 최대 120립의 종자를 생산한다고 한다. 러시아의 자생지에서 관찰된 바에 따르면 해당화 단일군락 1평방미터당 최소 31g에서 최대 139g의 열매가 생산되는데, 이에 근거하여 평방미터당 최소 600립에서 1300립의 종자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종자의 발아력은 84~94%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나, 립 중 4.5~5mg 이하의 종자는 발아율이 매우 낮아 7%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당화 종자의 산포는 크게 바닷물에 의한 수매산포와 열매를 먹는 동물에 의한 동물매개 산포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해당화의 장미과는 물에 띄웠을 때 최장 42주까지 부유력을 유지할 수 있고, 각각의 수과 역시 최장 6주까지 부유할 수 있다고 한다. 수과가 이렇게 장기간 부유할 수 있는 것은 수과의 중과피가 스폰지와 같은 구조의 유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며, 수과의 발아율은 부유기간이나 물의 염분 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동물매개 산포의 경우 다른 장미속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대개 조류에 의해 산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설치류, 토끼, 여우 등 소형 포유류에 의해서도 산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종자를 통한 유성번식 외에도 해당화는 흡지와 근경을 통한 무성번식을 통해 퍼지기도 한다.

## ❁ | 해당화의 분포범위와 침입종으로서의 해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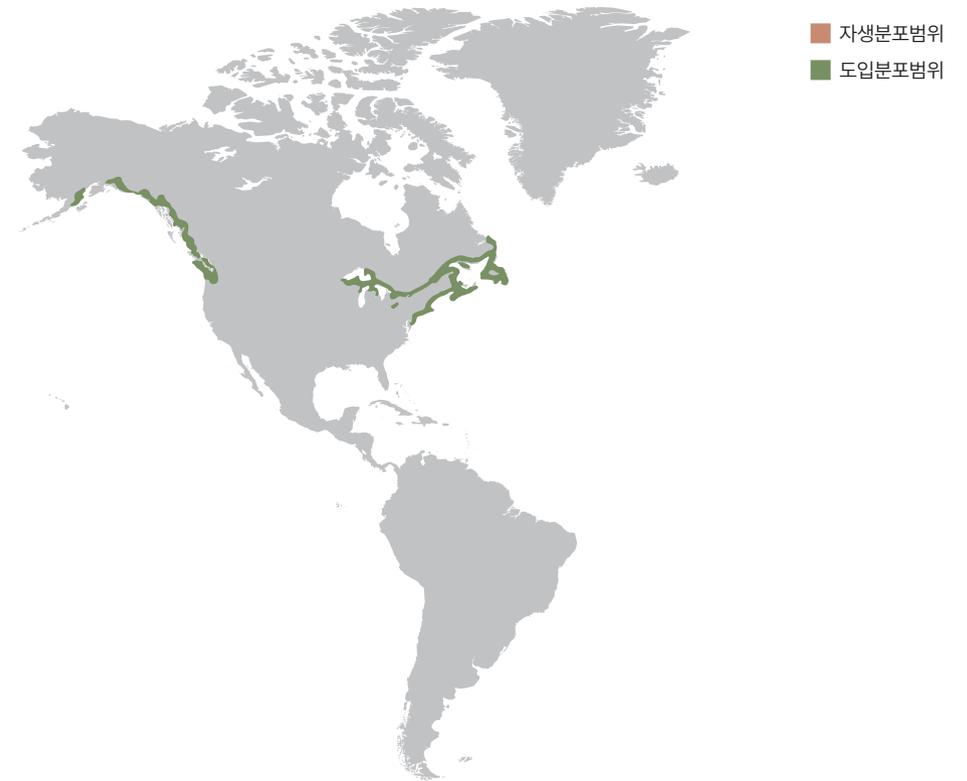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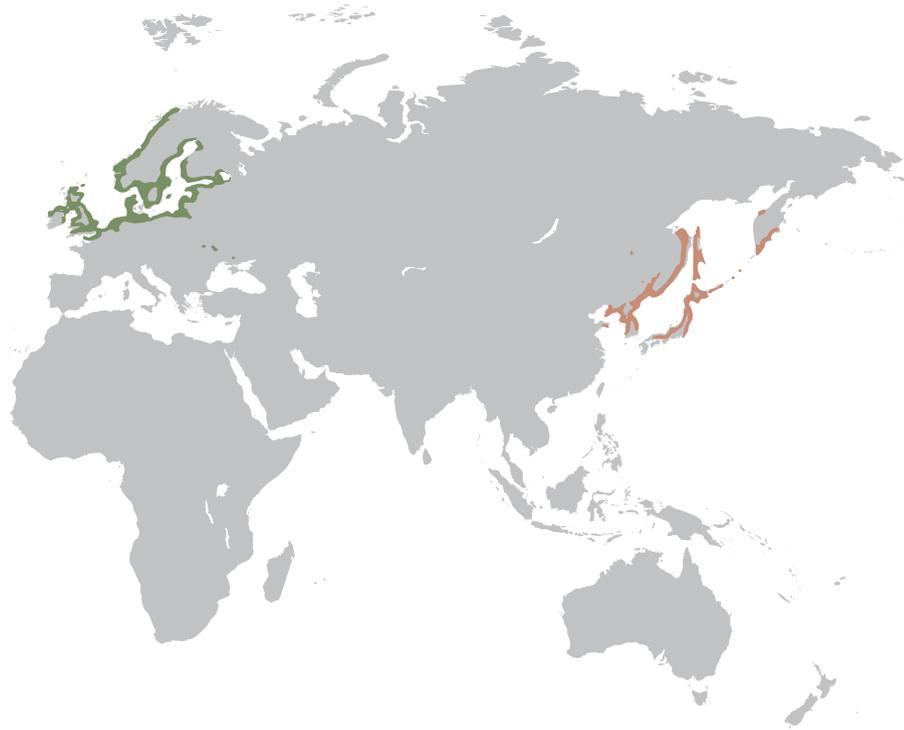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생리적, 생태적 특성 덕에 해당화는 꽤 넓은 지역에 걸쳐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주로 발견되며, 중국 요녕성과 산둥성의 해안지대,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의 해안지대, 사할린섬의 해안과 캄차카 반도 남단을 비롯한 러시아 극동부 해안지대에서도 자연적으로 분포한다. 그러나 오늘날 해당화는 그 자연적인 분포범위에서만 자라는 것은 아니다. 18세기 말엽



▲ 해당화의 국내 분포범위(Chang et al., 2012; Kelager et al., 2013; Chang & Kim, 2015)

부터 해당화는 관상이나 육종, 사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구미권에 도입되어 재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이 자연으로 탈출하면서 북유럽과 북아메리카의 해안지역에서도 분포하게 되었다. 오늘날 해당화는 유럽의 경우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북대서양 연안과 북해 및 발트해 연안을 따라 귀화하였으며, 북미의 경우 프랑스령 생피에르 미클롱,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샤, 온타리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퀘벡, 미국의 알래스카,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미주리,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등 북대서양연안과 오대호, 북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귀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미와 북유럽에서 해당화는 높은 경쟁력을 앞세워 기존의 해안식생을 밀어내고 단일군락을 형성하여 종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침입교란종으로서 생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해당화는 유럽 자생 장미류와 교잡하여 유전자 오염을 일으키고, 희귀식물인 *Silene otites* (L.) Wibel와 *Dianthus carthusianorum* L.의 서식지를 감소시키며, 자라는 위치의 토양 내 치환성 필수양분 함량을 높이는 등 서식지의 환경교란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들에서는 해당화를 식재하더라도 가급적 야생형은 피하고 유성생식능력이 적거나 없는 겹꽃품종들이나 중간교잡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자생분포범위  
■ 도입분포범위

▲ 해당화의 세계 분포범위. 분홍색은 자생하는 범위, 녹색은 귀화한 범위이다  
(Chang et al., 2012; Kelager et al., 2013; Chang & Kim, 2015)

## 2. '해당'이란 명칭에 얽힌 혼동

---

- ❁ | 우리나라 옛 문헌에 나타난 해당화의 명칭
  - ❁ | 중국에서 '해당'이라 불린 식물의 실체
  - ❁ | 이물동명으로 인한 혼동 및 오역과  
한국에서의 식물명 '해당'의 용례
-

## 매괴를 잘못 알고 해당이라 부르다니

(전략)

서울 사람 기르는 꽃들 복사와 자두가 고작인데 京城養花皆桃李  
 썩은 쥐로 배 채우고 고기 먹었다 자랑이지 腐鼠充腸誇嗜肉  
 매괴를 잘못 알고 해당이라 부르다니 錯把玫瑰呼海棠  
 능석이 까닭없이 오족이 된 셈이지 陵鳥無端爲烏足  
 화사의 글자 하나 보지도 않고서 花史曾無一字窺  
 더러운 마음으로 깨끗함을 더럽혀서야 滓穢生心汚清淑

(후략)

- 정약용 丁若鏞, 「우연히 시냇가에 갔다가 해당화 한 그루가 아  
 림답게 피어있는 것을 보고는 소동파 蘇東坡가 정혜원 定惠院에서  
 해당화를 읊었던 일이 생각나 드디어 그 운 韻을 차하다」

### ❁ | 우리나라 옛 문헌에 나타난 해당화의 명칭

해당화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여러 식물 중에서 꽤 눈에 띄는 축에 속한다. 개  
 화기에는 자줏빛의 향기로운 꽃잎이 돋보이고, 가을에는 주황색의 큼지막한 열매  
 가 시선을 끈다. 그렇다 보니 해당화는 시나 산행과정을 기록한 유산기 등 옛 문헌  
 기록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다. 예컨대 조선 중기의 문신 이응희 李應禧는 다음과 같  
 은 시를 남겼다.

봄이 저물 제 방초를 찾아가니 春暮尋芳卉  
 시냇가에 해당화가 가득하여라 溪邊滿海棠  
 붉은 비단이 새벽비에 젖은 듯 紫錦霑曉雨  
 붉은 꽃잎이 아침 햇살에 비친다 紅肉映朝陽  
 공부는 이 꽃을 읊기 어려웠고 工部吟難着  
 파선은 이 꽃을 상세히 읊었지 坡仙詠盡詳  
 가시가 있다 싫어하지 말라 莫嫌芒刺在  
 노니는 이가 꺾어도 다치지 않네 遊客折無傷

- 이응희 李應禧, 「해당 海棠」

또 조선 후기의 문신 윤휴 尹鑄가 금강산을 여행하고 남긴 여행기인 「풍악록 楓岳  
 錄」에서도 다음과 같이 해당화 군락을 묘사한 부분이 나온다.

그날 또 명사 鳴沙를 밟고 지나가기도 했다. 서해의 해변은 모두가 빨이어서  
 질척질척 빠지지만, 동해는 모두 하얀 모래 위에 맑은 파도뿐이니, 그 하얀  
 모래 위를 말을 몰고 가노라면 말발굽 사이에서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리  
 는데 이는 마치 눈을 밟는 소리 같기도 하며 또 혹은 새들이 서로 조잘대는  
 소리 같이 들릴 때도 있다. 그래서 이른바 명사라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또 해당화가 길 옆으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씨가 이미 여문 것도 있고 꽃이  
 아직 피어 있는 것도 있었다. 옛사람이 이른바, '명사십리해당홍 鳴沙十里海棠  
 紅'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인 것이다. 나도 시 한 수를 읊었다.

붉은색 꽃이 피고 가시가 많다거나 해안지대의 모래사장에서 자란다는 등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묘사를 보면 과거 조선에서 해당화라고 불렀던 식물은 오늘날 우리가 해당화라 부르는 식물과 일치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더 많은 문헌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당화라고 불리는 식물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묘사한 기록도 종종 나타난다. 예컨대 향기에 대한 묘사를 들 수 있다. 해당화의 꽃은 대다수의 *Rosa*속 종과 같이 향기가 짙는데, 옛 시 중에는 해당화가 향기가 없는 것으로 묘사된 경우가 있다. 한 예로 조선 후기의 문신 윤기尹愷가 지은 시 「영해당화詠海棠花」를 살펴보자.

붉은 꽃부리 사이로 푸른 잎새 紅英間綠葉  
봄볕에 절로 빛이 싱그럽네 春日自生光  
하지만 나비가 찾아오는 걸 싫어해 却嫌蝴蝶到  
백화의 향기 뽀는 걸 부끄러워하네 羞作百花香

- 윤기尹愷, 「영해당화詠海棠花」

여기에서 “향기 뽀는 걸 부끄러워하네”라는 시구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니. 송나라의 문인 팡연재彭淵材가 자신에게 다섯 가지 아쉬움이 있음을 표했다는 내용의 고사인데, 다음과 같다.

다섯 가지 한五恨이 있는데, 첫째는 시어鱗魚가 뼈가 많은 것, 둘째는 금굴金橘이 너무 신酸 것, 셋째는 순채尊菜가 성질이 냉冷한 것, 넷째는 해당화海棠花가 향기가 없는 것, 다섯째는 증자고曾子固가 시詩에 능하지 못한 것이다.

해당화의 향기 없음에 대해 논한 중국의 고사와 문헌은 이뿐만이 아니다. 명나라 낭영郎瑛의 저서 『칠수류고七修類稿』에는 “해당화는 본시 향기가 없는데, 오로지 창주昌州의 해당화만이 향기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송나라 심립沈立의 『해당기海棠記』에는 “해당화는 향기가 나지 않는데, 촉蜀 지역의 가주嘉州에서 나는 것만 향기가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중국 문헌 중의 해당화에 대한 서술이 우리가 현재 해당화라 부르는 식물이 지닌 특성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향기의 유무만

이 아니다. 정약용은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화보花譜』를 인용하여 “서검徐檢은 집 뜰에 해당을 심고 그 나무 위에 원두막을 만들어 손님을 초대하여 등불을 밝히고 대작을 했다”라고 기록하였다. 바닷가에서 자라는 관목인 우리나라의 해당화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몇몇 문인은 사신의 자격으로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현지에서 해당화라 불리는 식물을 직접 관찰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였는데, 이들 기록에 나타나는 해당의 특성 역시 *Rosa rugosa*와는 다르다. 이덕무의 경우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서 중국의 해당에 대해 “잎사귀는 치자梔子 같았고 꽃은 철쭉꽃 같았다. 꽃송이는 작았고 꽃잎은 다섯이었으며, 줄기는 희고 향기가 없었다.”라고 하였고, 김경선金景善은 『연원직지燕巔直指』에서 “높이는 한 길 남짓하다. 가지와 줄기는 배나무와도 비슷하고, 또 모과나무와도 비슷한데, 이름을 물으니 서부해당西府海棠이라 하며 꽃의 빛깔은 분홍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또 홍대용洪大容의 문집 『담헌서澹軒書』 중 저자가 중국의 화훼농장을 구경한 뒤 그곳에서 보았던 꽃에 대해 남긴 기록에도 해당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단화山丹花와 꼭 같은데, 다만 색깔이 연분홍에 꽃잎이 좀 큰 편이다.”라고 적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중국에서 ‘해당화’라고 지칭되는 식물은 우리나라에서 해당화라 불리는 식물과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이같은 사실은 정약용을 비롯한 다수의 조선시대 문인에 의해서도 인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고문헌 중 해당의 정체와 관련한 기록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강희안(姜希顔, 1419~1464)

##### • 양화소록 養花小錄

세상 사람들이 여러 꽃의 이름을 익히지 않았기에 산다山茶를 동백冬柏이라 하고, 자미紫薇를 백일홍百日紅이라 하고, 신이辛夷를 향불向佛, 매괴玫瑰를 해당海棠, 해당을 금자錦子라 하여 같고 다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니 비단 꽃 이름뿐이라?

- 『양화소록』, 이병훈역

2) 서거정 (徐居正, 1420~1488)

• 사가집 四佳集

국속國俗에 매괴를 해당이라 하는데, 내가 일찍이 『화보花譜』를 상고해 본 결과, 경순景醇의 집에서 옮겨온 것이 바로 진짜인 듯하다. 그러나 또한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인하여 앞의 운에 화답하다.

매괴가 해당화란 이름을 훔친 때문에 玫瑰名竊海棠花  
육안들 말도 많아라 너를 어찌할거나 肉眼紛紛奈汝何  
일 좋아한 내 일찍이 옛 화보를 찾아보고 好事我曾尋舊譜  
옮겨 심어 새 꽃송이를 지금 보게 되었네 移根今見綻新窠  
연지를 막 바른 채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臙脂初着迎朝旭  
꽃잎은 흩날려 저녁 모래톱에 내리누나 香玉飄殘點晚沙  
향기 없어 오한을 더한다고 말들을 마소 莫說無香添五恨  
온종일 보고 또 보아 실컷 완상하는 걸 看看終日賞心多

3) 성현 (成俔, 1439~1504)

• 허백당집 虛白堂集

매괴

한 그루 매괴나무가 있으니 一朵玫瑰樹  
전하는 말에 해당화라 이르는데 人傳是海棠  
이슬은 내려 꽃가루를 가벼이 씻고 露華輕洗粉  
바람은 불어 향기를 살살 풍겨주네 風骨細通香  
처음엔 붉은 비단을 오렸나 했더니 始訝紅羅剪  
끝내는 비단 우산을 펼친 듯하구나 終成錦繡張  
어여빠라 더없이 고운 자태 뽐내며 憐渠矜絕艷  
글 읽는 책상 가까이 피어 있는 게 開近讀書床

• 용재총화 (慵齋叢話)

물건에는 서로 비슷한 것이 아주 많다.

(중략) 해당화와 모과꽃이 비슷하고, 매괴와 사계四季가 비슷하고

(중략) 그 밖의 물건으로 대소와 장단이 비록 다르나 형체가 서로 비슷한 것은 한이 없다.

4) 김창업 (金昌業, 1658~1722)

• 노가재집 老稼齋集

매괴

매괴는 세속에서 해당이라 부른다. 종류는 매우 많으며, 꽃은 짙은 것과 옅은 것, 겹꽃, 홑꽃의 구별이 있다.

진한 붉은 색 여러 종류는 모두 선명하고 深紅數種摠鮮明

황색 또한 북경에 있다고 들었네 黃色又聞在北京

그대를 보니 스스로 화격이 낮아진 것이 아니니 看君亦自非庸品

해당이라 불러도 되겠구나 不妨還冒海棠名

해당

세속에서 산다라 부른다.

함부로 산다라 지어 부르고 無端被喚作山茶

진짜 이름은 다른 것에 빌려주니 우습구나 可笑眞名借與他

예전부터 지금껏 이와 같은 일이 많으니 從來世事多如此

과연 들꽃에도 착오가 있겠구나 難怪閑花有謬譌

• 연행일기 燕行日記

맑음. 북경에 머물렀다.

수역 박동화가 해당화와 매화 화분을 하나씩 가져왔는데, 정세태에게 얻었다고 한다. 꽃이 바야흐로 만개하였다. 해당은 곧 우리나라의 산다라는 것이다. 일찍이 산다가 해당이라는 것은 알았으나, 이것을 보고 더욱 확실하게 알았다.

5) 이익 (李瀼, 1681~1763)

• 성호사설 星湖僿說

(전략)

이 지당地棠이란 꽃은 『화보』에 상고해 보니, 빛이 불그스름하게 붉은 해당이라 하였다. 지금 세속에서 가리키는 해당은 가지에 가시가 많고 꽃은 질게 붉으니 이는 해당이 아니고 꽃 중에 제일 품질이 나빠서 보잘것이 없다. 추측컨대, 해당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있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없어진 듯하다.

6) 유박 (柳璞, 1730~1787)

• 화암수록 花庵隨錄

안사형의 편지

(전략)

꽃이 매화와 같지만 붉고 향취가 없고 연한 것이 해당이 분명하니, 다행히 의심을 푸시고 이 뒤로는 참해당으로 대접하십시오. 이 말이 속인의 말이 아니니 의심하지 말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세속에서 말한 해당은 이름 없는 들꽃이 아니면 자형화紫荊花 종류를 가리킵니다.

(후략)

- 『양화소록』, 이병훈역

7) 이덕무 (李德懋, 1741~1793)

• 청장관전서 靑莊館全書

아침에 점방店房에서 해당화를 보았다. 잎사귀는 치자梔子 같았고 꽃은 철쭉꽃 같았다. 꽃송이는 작았고 꽃잎은 다섯이었으며, 즐기는 희고 향기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해당화라 하는 것은 향기가 있고 가시가 많은데, 곧 홍장미紅薔薇이다. 또 매괴라고도 한다.

8)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 아언각비 雅言覺非

해당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즉 서부해당西府海棠, 첩경해당貼梗海棠, 수사해당垂絲海棠, 모과해당木瓜海棠, 추해당秋海棠, 황해당黃海棠이 그것이다. 그 나무의 높이는 혹은 한 두 장에 이르고, 창주의 해당은 줄기 굵기가 두 아름 되는 것이 있다.

『화보』에서는 “서검은 집 뜰에 해당을 심었는데, 그 나무 위에 원두막을 짓고 손님을 초대하여 등불을 밝히고 대작을 했다.”라고 하여 이 나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매괴화를 해당으로 잘못 알고 있다. 어떤 이는 “금강산 동해안 모래사장에 자라고 꽃이 피는데 선홍색으로서 무척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해당화다.”라고 하지만 모두 잘못된 것이다. 매괴는 배회화裵回花라고도 말하며 곳곳에 있다. 그 나무는 가지가 많고 꽃은 장미와 같다. 『진씨화경陳氏花鏡』에 이르기를 “색은 자주색이고 향기는 기름지고 짙는데, 말릴수록 더욱 강렬하다. 부채에 매다는 향낭으로 삼는다. 혹은 당상을 만들 때 오매와 함께 익혀서 찢는데 매괴장이라 부른다.”라고 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일체 이러한 일을 모르고 있다.

9) 서유구 (徐有渠, 1764~1845)

•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

해당화는 마치 붉은 비단 같은 색을 정색으로 친다. 나머지는 당리棠梨일 뿐이다. 해당화는 향기가 없고 오로지 촉지역 거주嘉州의 것만이 향이 있고 나무가 크다. 황해당黃海棠이 있는데 꽃이 노랗고, 첩간해당貼幹海棠은 꽃이 작고 선명하며, 수사해당垂絲海棠은 꽃이 분홍이며 아래로 핀다. 이 모두 열매가 없으니 진짜 해당은 아니다.

이백李白의 시의 주에서 이르기를, “해홍海紅은 곧 꽃의 이름이며 신라국에서 왔다”고 하였으니 해당은 본래 우리나라에서 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이르는 해당의 류는 모두 떨기가지에 가시가 많고 꽃은 피나 열매는 맺지 않는다. 무릇 해당이 당棠이라 이름을 얻은 것은 바로 그 열매의 류가 당리棠梨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그 열매가 없는 것을 어찌 해당이라 이름하겠는가.

내가 금화산장金華山莊에 머물 때 뒷기슭에 작은 나무가 무리지어 났는데 봄에는 꽃이 피어 붉은 꽃잎 다섯 장이 나고 색이 매우 선연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 마치 모과와 같았다. 촌 마을의 사람들이 이를 모과라고 불렀지만, 이는 모과가 아니다. 심립沈立의 『해당기海棠記』를 보면서 그 잎, 꽃받침, 꽃잎, 꽃술 등을 모두 살펴보니 하나하나 부합하였다.

비로소 알겠노니, 우리 나라에 절로 나는 진짜 해당이 있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금 해당이라 칭해지는 것은 모두 붉은 장미紅薔薇의 류이다. 관동 해서의 바닷가의 땅에 금사해당金砂海棠이란 것이 있는데 뿌리가 없고 잎이 없고 해변에 흩어져 난다. 색은 짙은 붉은 색인데 바라보면 마치 꽃이 땅에 점점이 떨어져 있는 듯하다. 이 꽃은 또 다른 종류의 초목이다.

10) 김정희 (金正喜, 1786~1856)

• 완당전집 阮堂全集

초의가 『군방보群芳譜』를 초했는데 증정證正이 많다. 이를테면 해당·우미인虞美人의 유 같은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나는 이르기를, 집화경集花經 중

의 소초疏鈔로 인하여 그르친 것이 또 해당, 우미인 따위뿐만이 아니니 마땅히 하나하나 증정을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라 하였음.

매괴를 해당이라 둘러쓰워 전해오고 玫瑰仍冒海棠傳  
우미인은 노소년과 그릇되게 알려졌네 虞美人訛老少年  
잡화의 진실의를 또렷하게 가리자면 的的樸花眞實義  
소초에 얽혀진 걸 맨 먼저 해결해야 且於疏鈔破牽纏

11) 이규경 (李圭景, 1788~1856)

•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

중원의 해당과 우리나라 해당은 이름은 같지만 종류는 다르다. 우리가 해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매괴인데 중원에서 장미라고 부르는 종류이다. 나의 왕고께서 편찬한 『청비록淸脾錄』과 정다산의 『아언각비』에서 이미 살펴볼 만한 변증이 있다. 『화보』를 살펴보니 우리나라에는 본래 이 종류가 없고 장미와 같은 한 종류가 있는데 해당이라고 칭한다. 그 모양을 상세히 살펴보면 곧 붉은 매괴이다. 천엽과 단엽과 바닷가에서 자라는 것이 있어서 모두 세 종류이다. 육지에서 자라는 것은 무리지어서 자라며, 가지를 뽑아내는데 길이는 1장 남짓이고 가는 가시가 많고, 줄기는 붉고 가시는 희고, 잎은 둥글면서 작는데 천엽과 단엽이 같다. 사오월에 꽃을 피우고 짙은 홍색이고 향기가 있으며, 꽃이 지면 열매를 맺는데 작은 당리와 같고 자랄 때는 푸른데 익으면 황적색이다. 어린애들이 간혹 따서 먹는데 맛이 약간 시다.

바닷가 모래밭 안에서 자라는 것은 덩굴을 뺀 것이 겨우 모래 밖으로 나오고 떨기를 이루고 무리지어 모여 있다. 여름과 가을에 두 번 꽃을 피우고, 맺은 열매는 육지에서 자라는 것과 같다. 열매의 크기는 엄지손가락 머리만하고 익으면 홍황색인데 씨앗이 그 안에 가득하다. 맛은 매우 달고 신데 먹을 만하고 절여서 익히면 더욱 좋아서 과일소반에 담아서 술안주로 대용할 수 있다. 흥년이면 바닷가 백성들은 따다가 웅기 안에 덮어두고 쥘

어 삭혀서 배고픈 시기를 보내는데, 동서남북의 바닷가에서 모두 같다. 꽃은 흰 모래밭에 퍼져서 완전히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여 한 경치를 돕는다.

- 『양화소록』, 이종목 역해

12) 조재삼 (趙在삼, 1808~1866)

• 송남잡지 松南雜識

지금 인가에서 떨기나무의 형태로 나는 것은 당리이니, 본래는 들장미로 민간에서는 매괴화라고 한다.

13) 이유원 (李裕元, 1814~1888)

• 임하필기 林下筆記

창주昌州의 해당화만이 유독 향기가 있다. 왕우칭王禹偁의 시에, “손수 뜯어 꽃을 심으니 정원에 향기 가득하네手植庭花滿院香”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이 품종이 없으니 한번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자장미紫薔薇를 해당이라고 하며 향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황만화黃蔓花를 신이辛夷라고 하는데, 『본초本草』에는 목필화木筆花가 신이로 되어 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홍장미紅薔薇를 해당海棠이라고 하는데, 『군방보群芳譜』에는 산단山丹이 해당으로 되어 있다.

14) 이창우 (李昌雨)

• 수세비결 壽世秘訣

(매괴는) 우리나라에서는 해당화라고 부르는 것으로 향기가 있으며, 향기가 없는 것은 해당화는 아니다. - 한의학고전 DB



▲ 중국에서 '매괴'의 종류로 간주된 식물인 해당화 *Rosa rugosa* Thunb.

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당시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해당이라고 불린 식물은 실제 중국에서 매괴玫瑰라 불리는 식물로, 자장미紫薔薇, 홍장미紅薔薇 등으로도 불린다는 주장이 나타난다. 중국 고문헌상의 묘사를 찾아보면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는데, 예컨대 청대의 서적 『광군방보廣羣芳譜』<sup>1</sup>에 매괴라는 명칭으로 실린 식물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玫瑰，一名徘徊花，灌生，細葉，多刺，類薔薇，莖短，花亦類薔薇，色淡紫，青棗，黃藥，瓣末白，嬌艷芬馥，有香有色，堪入茶，入酒，入蜜，栽宜肥土，常加澆灌，性好潔，最忌人溺，溺澆即萎，燕中有黃花者，稍小於紫，嵩山深處有碧色者。

『광군방보』에 기재된 내용 중 향기가 진한 자주색 꽃이 피는 가시 많은 관목으로 장미와 유사하다는 묘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당이라 칭하는 *Rosa rugosa*의 특성과 일치한다. 또 북경에서 나는 것으로 꽃이 황색으로 피며 일반적인 매괴보다 작은 꽃을 지닌다는 종류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노랑해당화라 불리는 *Rosa xanthina* Lindl.를 연상케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해당’이라고 불린 식물이 중국에서는 ‘매괴’라고 불린다는 조선시대 문인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해당화’라고 지칭하던 식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 중국에서 ‘매괴’의 종류로 간주된 식물 생열귀나무 *Rosa davurica* Pall.와 노랑해당화 *Rosa xanthina* Lindl.

1 1621년 명나라의 왕상진王象晉이 식물에 관하여 저술한 『군방보羣芳譜』를 1708년 강희제의 명에 따라 왕호汪灝, 장일소張淩少, 왕룡汪隆, 황룡미黃龍眉 네 명의 대신이 교감, 증보하여 편찬한 서적.

## 해당화로 불린 식물

분류		현대 일반명	
속	종	한국 (표준식물목록)	중국 (중국식물지)
<i>Rosa</i>	<i>Rosa rugosa</i>	해당화	玫瑰(매괴)
	<i>Rosa davurica</i>	생열귀나무	山刺玫(산자매)
	<i>Rosa xanthina</i>	노랑해당화	黄刺玫(황자매)
<i>Malus</i>	<i>Malus halliana</i>	서부해당	垂丝海棠(수사해당)
	<i>Malus spectabilis</i>	중국꽃사과	海棠花(해당화)
	<i>Malus × micromalus</i>	개아그베나무	西府海棠(서부해당)
<i>Chaenomeles</i>	<i>Chaenomeles speciosa</i>	명자나무	皱皮木瓜(추피모과)
	<i>Chaenomeles cathayensis</i>	-	毛叶木瓜(모엽모과)
<i>Hypericum</i>	<i>Begonia grandis</i>	큰베고니아	秋海棠(추해당)
	<i>Hypericum ascyron</i>	물레나물	黄海棠(황해당)

근대 이전의 명칭	
한	중
<i>Rosa rugos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海棠 (일반용례)</li> <li>매괴玫瑰 (「아연각비」 등)</li> <li>홍/자장미紅/紫薔薇 (「임원경제지」, 「임하필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괴玫瑰 (「군방보」)</li> <li>배회화裴回花 (「군방보」)</li> </ul>
<i>Rosa davuric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海棠 (「오주연문장전산고」)</li> <li>야당화野棠 (「의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자매紅刺梅* (「학포잡소」)</li> <li>야홍매괴화野紅玫瑰花* (「Chinese Plant Names」)</li> </ul>

\* 문헌 상의 묘사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으나, 정황상 유력한 지칭대상 및 명칭

근대 이전의 명칭	
한	중
<i>Rosa xanthin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화海棠花 (「조선삼림식물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괴玫瑰 (「군방보」)</li> <li>황자매黃刺梅 (「학포잡소」)</li> <li>황매괴黃玫瑰 (「Chinese Plant Names」)</li> <li>목여자木如子 (「Chinese Plant Names」)</li> </ul>
<i>Malus hallian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여부 불확실, 해당海棠* (「동국이상국집」, 「운양집」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사해당垂絲海棠 (「군방보」)</li> </ul>
<i>Malus spectabili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여부 불확실, 해당海棠* (「동국이상국집」, 「운양집」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海棠 (「Noms indigènes d'un choix de plantes du Japon et de la Chine」, &lt;On the Study and Value of Chinese Botanical Works&gt;)</li> </ul>
<i>Malus × micromalu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여부 불확실, 해당海棠* (「동국이상국집」, 「운양집」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부해당西府海棠 (「군방보」)</li> <li>해홍海紅 (「Noms indigènes d'un choix de plantes du Japon et de la Chine」)</li> <li>해당과海棠果* (「Chinese Plant Names」)</li> </ul>
<i>Chaenomeles specios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단山丹 (「화암수록」, 「운양집」 등)</li> <li>해당海棠 (「임원경제지」, 「조선삼림식물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첩경해당貼梗海棠 (「군방보」)</li> <li>Pak hoey tong (&lt;Chinese Plants&gt;)</li> <li>Kun fun hoey tong (&lt;Chinese Plants&gt;)</li> <li>Tee che Hoey Tong (&lt;Chinese Plants&gt;)</li> <li>Tiet kong pak hoey tong (&lt;Chinese Plants&gt;)</li> </ul>
<i>Chaenomeles cathayensis</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과해당木瓜海棠 (「군방보」)</li> </ul>
<i>Begonia grandis</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해당秋海棠 (「군방보」, &lt;On the Study and Value of Chinese Botanical Works&gt;)</li> <li>Chun hoey tong (&lt;Chinese Plants&gt;)</li> </ul>
<i>Hypericum ascyron</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황해당黃海棠 (&lt;Szech'uan Plants&gt;)</li> </ul>

## ❁ | 중국에서 ‘해당’이라 불린 식물의 실체

중국에서 어떠한 식물을 해당이라 칭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기록상에서의 해당에 대한 묘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참고하였던 『광군방보』중 ‘해당海棠’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海棠有四種, 皆木本, 貼梗海棠, <叢生, 單葉, 枝作花磬口深紅, 無香, 不結子, 新正即開, 亦有四季花者, 花五出, 初極紅, 如臙脂點點然, 及開則漸成纈暈, 至落則若宿妝殘粉矣.> 垂絲海棠, <樹生柔枝長蒂, 花色淺紅, 蓋由櫻桃接之而成, 故花梗細長似櫻桃, 其瓣叢密而色嬌媚, 重英向下有若小蓮.> 西府海棠, <枝梗畧堅, 花色稍紅.> 木瓜海棠, <生子如木瓜, 可食.> 海棠盛於蜀, 而秦中次之, 其株翛然出塵, 俯視眾芳, 有超羣絕類之勢, 而其花甚豐, 其葉甚茂, 其枝甚柔, 望之綽約如處女, 非若他花冶容不正者比, 蓋色之美者惟海棠, 視之如淺絳, 外英英數點如深臙脂, 此詩家所以難為狀也, 以其有色無香, 故唐相賈耽著花譜, 以為花中神仙, 花木錄曰, 南海海棠, 枝多屈曲有刺, 如杜梨, 花繁盛, 開稍早, 四季花, 灌生, 花紅如臙脂, 無大木, 即貼梗, 又祝家桃, 花同西府, 微堅瑣碎, 錄曰, 一種黃者, 木性, 類海棠, 青葉微圓而色深光滑不相類, 花半開鵝黃色, 盛開漸淺紅矣, 葉間或三或五蕊, 如金粟, 鬚如紫絲, 實如梨, 大如櫻桃, 至秋熟, 可食, 其味甘而微酸.

이를 보면 중국에서 해당이라 불린 식물로는 첩경해당, 수사해당, 서부해당, 모과해당의 네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종류별로 기재된 특성에 대한 묘사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혼란스럽다. 예컨대 첩경해당과 수사해당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화경이 짧고 붉은색 꽃이 피는 관목으로 묘사된 반면, 후자는 가지가 늘어지는 교목으로서 화경이 길고 작은 연꽃과도 같은 분홍색의 겹꽃이 피는 식물로 묘사되어 같은 종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진화적 유연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의 과학적 식물분류기준과 달리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식물분류기준은 용도나 단순한 외형 및 생태적 습성의 유사성에 근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 (위쪽부터)서부해당, 개아그배나무, 명자나무의 꽃

에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이나 속, 심지어는 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식물일 지라도 과거에는 같은 종류로 인지되거나 지칭되는 경우가 잦았다.

『광군방보』에 기재된 네 가지 해당의 경우, 『중국식물지 Flora of China』의 저자들은 그 특성에 기반하여 첩경해당은 *Chaenomeles speciosa* (Sweet) Nakai 명자나무, 수사해당은 *Malus halliana* Koehne 서부해당, 서부해당은 *Malus* × *micromalus* Makino 개아그배나무, 모과해당은 *Chaenomeles cathayensis* (Hemsl.) C.K.Schneid.인 것으로 동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보건대, 과거 중국에서는 꽃사과나무 종류와 명자나무 종류를 통틀어 해당이라고 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꽃사과나무나 명자나무 종류가 아님에도 해당이라 불린 식물도 있었는데, 추해당이 한 예이다. 『광군방보』의 해당 항목에 부록으로 붙은 추해당 항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名八月春, 草本, 花色粉紅, 甚嬌艷, 葉綠如翠羽, 此花有二種, 葉下紅筋者為常品, 綠筋者開花更有雅趣

추해당은 오늘날의 식물학자들에 의해 *Begonia grandis* Dryand., 즉 큰베고니아로 동정되는데, 가을에 분홍색 꽃이 피고 잎이 날개 같다는 묘사는 큰베고니아와 일치한다. 『광군방보』에 따르면 큰베고니아는 팔월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추해당과 팔월춘 모두 가을철에 서부해당이나 개아그배나무의 꽃과 비슷한 색상과 형태를 갖춘 꽃을 피운다는 점에서 유래한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문헌에 기록된 내용에만 근거하여 식물명의 지칭대상을 동정하는 것은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 이전의 식물분류기준은 과학적 분류기준과 동떨어진 면이 많았고, 또한 통신 및 인쇄기술의 한계로 인한 정보 전달의 부정확성과 통일된 형태학 용어 및 명명기준의 부재로 인해 지역 및 시대에 따라 동명이물이나 이물동명의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더해 식물의 특성에 대한 기재 역시 통일된 용어 없이 저자가 아는 다른 식물에 비유하는 등 주관적으로 작성되었기에 해석상의 모호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과거 동아시아에서 어떤 분류학적 실체에 어떠한 명칭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 서부해당(위)과 개아그배나무(아래). 서부해당(중국명칭 수사해당)은 가지가 늘어지는 대관목 내지는 소교목인 반면, 개아그배나무(중국명칭 서부해당)는 직립하는 교목이다.

는 과거 중국을 방문하였던 유럽 식물학자들의 기록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록 중 하나로 『The Asiatic Journal and Monthly Register for British India and its Dependencies』<sup>2</sup>의 제4권(1817)과 제5권(1818)에 실린 당대 광둥에서 볼 수 있었던 식물의 광둥어 명칭과 학명 및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담은 기고문 「Chinese Plants」를 보면 ‘hoey tong’, 즉 ‘해당’이라는 식물명이 총 7개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한 설명문을 옮겨 보자면 다음과 같다.

Teet che hoey tong – *Pyrus japonica*

Pak hoey tong – *Pyrus japonica*, with white flowers. Flowers in February and March.

Si foo hoey tong – *Pyrus*. This is in general cultivation at Canton as an ornamental plant. It is originally from the north, where it is said to grow to a considerable size, and produce a small edible fruit. At Canton it is only seen in a dimunitive state, and produces no fruit.



2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제, 정치, 문화와 영국 동인도회사 관련 상업적 정보를 다루었던 잡지로 1816년부터 발간되었다.

▲ 중국에서 ‘해당’의 종류로 간주된 식물들(좌측에서부터 중국꽃사과나무 *Malus spectabilis* (Aiton) Borkh. [海棠花], 서부해당 *Malus halliana* Koehne [垂絲海棠], 개아그배나무 *Malus × micromalus* Makino [西府海棠], 명자나무 *Chaenomeles speciosa* (Sweet) Nakai [貼梗海棠], *Chaenomeles cathayensis* (Hemsl.) C.K.Schneid [木瓜海棠])

Chun hoey tong or Chou hoey tong - *Begonia discolor*. This plant holds a high rank among Chinese ornamental plants, both on account of its flowers and curious oblique leaves. Flowers early in the spring, and having perfected its seeds which it does in about two months after flowering, the leaves and stem decay and the root which is a bulb continues in the ground in a dormant state till the next spring.

Kun fun hoey tong - *Pyrus japonica*, floribus rubescentibus. This variety is not so plentiful as the common red sort cultivated among the ornamental plants at Canton in pots. Flowers early in spring.

Tiet kong pak hoey tong - *Pyrus japonica* floribus albis. This is by far the scarcest variety of *Pyrus japonica*, and besides in the color of the flowers differs considerably in other respects from the other varieties.

Shan teet chee Hoey Tong - *Hypericoides myrtifolia*.

이 중 Teet che hoey tong, Pak hoey tong, Kun fun hoey tong, Tiet kong pak hoey tong의 네 가지는 모두 *Pyrus japonica* 및 그의 재배품종으로 기재되었는데, *Pyrus japonica* Thunb.는 *Chaenomeles japonica* (Thunb.) Lindl. ex Spach, 즉 풀명자의 이명이다. 그러나 1870년경 영국의 양묘업자 마울Maule 형제가 일본으로부터 진짜 풀명자를 도입하기 이전까지의 유럽 식물학자와 원예가들은 명자나무가 풀명자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기에, 「Chinese Plants」에 실린 학명 *Pyrus japonica*는 실제로는 명자나무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Pyrus* 속 식물로 기재된 Si foo hoey tong은 그 명칭과 설명을 볼 때 개아그배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사과나무류는 *Malus*속으로 분류되지만, 당시에는 *Malus*속을 비롯해 오늘날 장미과Rosaceae 빛나무아과Amygdaloideae 사과나무족Maleae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속 중 대다수가 배나무와 같은 *Pyrus*속으로 분

류되었기에, 여기서도 *Pyrus*속으로 기재되었다하여 함부로 배의 일종으로 여길 수 없다. Chou hoey tong은 *Begonia grandis* Dryand.인 것으로 기록되어 역시 「광군방보」의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Hypericoides*속의 종으로서 *myrtifolia*라는 종소명을 지닌 학명은 출판된 적이 없기에 Shan teet chee Hoey Tong이라고 기록된 식물은 그 실체가 모호하다. 그러나 *Hypericoides*속은 오늘날 *Hypericum*(물레나무속)에 통합되었고, 또 『The China Review』의 제11권 6호(1883)에 실린 에드워드 하퍼 파커Edward Harper Parker의 기고문 「Szch'uan Plants」에 *Hypericum ascyron* L., 즉 물레나무의 사천지역 향명 중 ‘황해당黃海棠’이라는 명칭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레나무와 동속의 식물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꽃의 형태가 꽃사과 및 명자나무류와 유사하여 중국에서 ‘해당’으로 불렸던 식물들(좌측에서부터 물레나무 *Hypericum ascyron* L. [黃海棠], 큰베고니아 *Begonia grandis* Dryand. [秋海棠])

이 외에도 독일의 언어학자 요한 조셉 호프만 *Johann Joseph Hoffmann*과 식물학자 율리우스 헤르만 슐츠 *Julius Hermann Schultes*는 저서 『Noms indigènes d'un choix de plantes du Japon et de la Chine』에서 *Malus spectabilis* (Aiton) Borkh., 즉 중국꽃사과나무의 이명인 *Pyrus spectabilis* Aiton의 중국 명칭으로 해당 *海棠*과 해홍 *海紅*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경의 러시아 공관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던 중국학자 에밀 브레트슈나이더 *Emil Bretschneider*는 그가 1870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에 연재한 기고문 「On the Study and Value of Chinese Botanical Works」에서 중국에서 Hai-t'ang, 즉 해당이라 불리는 식물은 *Pyrus baccifera*<sup>3</sup> 혹은 *Pyrus spectabilis* Aiton이라고 적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에서 식물명 ‘해당’은 꽃사과류와 명자나무류를 통칭하는 명칭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꽃의 형태에 있어 꽃사과 및 명자나무류와 유사성을 지닌 베고니아와 물레나물 종류를 각기 추해당과 황해당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 | 이물동명으로 인한 혼동 및 오역과 한국에서의 식물명 ‘해당’의 용례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문헌 간에 해당화와 관련하여 불일치하거나 상충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결국 *海棠*이라는 한자 식물명이 중국과 한국 양국에서 서로 다른 식물을 지칭한 것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하며, 교통과 통신기술의 한계로 인해 혼동과 오류가 발생 및 유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식자층 중에서 화훼에 관심이 있거나 고증학에 조예가 있는 몇몇은 중국에서 지칭하는 해당이 *Rosa rugosa*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중국에서 해당이라 칭하는 식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이유원은 산단 *山丹*이라는 식물이 곧 해당이라고 하였으나, 성현은 『용재총화』에서 해당이 모과꽃과 비슷하다 하였고, 안사형 *安士亨*은 꽃의 형태가 매화와 유사하나 붉고 향기가 연한 것이 해당이라고 하였다. 또 서유구는 본인이 금화산장

에서 머물 적 목격하였던 “봄에는 꽃이 피어 붉은 꽃잎 다섯 장이 나고 색이 매우 선연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 마치 모과와 같”은 작은 관목이 곧 해당이라고 보았다. 이들이 해당으로 여긴 것은 그 특성에 대한 묘사를 볼 때 명자나무였던 것으로 보여 조선에서도 일부 식자는 중국에서의 용례와 일치하는 인식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희안은 조선에서 금자 *錦子*라고 칭하는 것이 중국의 해당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김창업은 조선에서 산다라 칭해지던 *Camellia japonica* L., 즉 동백나무가 중국의 해당이라고 보았다. 강희안의 금자는 그 특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히 어떤 식물을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지만, 김창업이 동백나무를 중국의 해당이라 간주한 것은 오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창업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이시진 *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본초강목』에서 해당은 해홍 *海紅*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sup>4</sup>, 이 명칭의 기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시진은 이백 *李白*의 시에 달린 주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대에 따른 식물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이시진의 오류이며, 당나라의 인물인 이백이 해홍이라는 식물명으로 지칭한 식물은 실제로는 꽃사과나 명자나무류가 아니라 해석류 *海石榴*, 즉 동백나무였다.<sup>5</sup> 이로 인해 김창업은 이시진이 언급한 중국의 해당 역시 동백나무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역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서유구가 “이백의 시의 주에서 이르기를, 해홍은 곧 꽃의 이름이며 신라국에서 왔다고 하였으니 해당은 본래 우리나라에서 난 것이다.”라고 적은 것 역시 이와 같은 연유에서 발생한 착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 같이 꽃사과류 및 명자나무를 해당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 「지당화를 논하여 이소경 *李少卿*에게 부치다」를 살펴보면 꽃사과 종류를

3 *Malus baccata* (L.) Borkh., 즉 아광나무의 이명인 *Pyrus baccata* L.의 오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4 이와 관련하여 호프만과 슐츠는 『Noms indigènes d'un choix de plantes du Japon et de la Chine』에서 해홍에 대해 “Hài hoûng, de la Chine occidentale”, 즉 해당 중 중국 서부의 것을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해홍이 서부해당 *西府海棠*의 이칭이라는 문헌을 오독한 것으로 보인다.

5 『잠학유서 *潛確類書*』에는 “해홍이 신라국에 많은데, 이는 곧 천홍 *淺紅*색의 산다 *山茶*이다”라는 기록이 있고, 『유서찬요 *類書纂要*』에는 “신라국에서 나는 해홍은 꽃의 색이 옅은 산다인데, 12월에서 2월까지 매화와 같이 피므로 일명 대매 *茶梅*라고도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해당이라고 칭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구가 나타나는데, “빛깔이 해당이나 당채와도 같지 않으니 / 당이라 일컫는 것도 옳지 않다”와 “나는 말하리라 어류화는 연분홍으로 피었다간 바로 떨어지니 / 짙은 노랑 여름 내내 가득 핏에 미칠쏘냐”라는 구절이 그것으로, 해당 시구들에 묘사된 해당의 화색과 개화기는 *Rosa rugosa*보다는 꽃사과 종류에 가깝다.

또 조선 후기 문인 김윤식<sup>金允植</sup>의 문집 『운양집<sup>雲養集</sup>』에는 당시 세간에서 산단<sup>山丹</sup>이 첩경해당이라고 불렸으나 산단의 화색이 짙은 붉은 색이기에 과연 해당의 일종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던 중 영탑산<sup>靈塔山</sup> 아래 인가에서 해당과 비슷한 연한 색의 꽃을 피우는 종류를 얻어 해당이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을 풀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본래의 해당은 열은 홍색으로 핀다고 한 점으로 보아 김윤식이 해당으로 인식한 식물은 *Rosa rugosa*가 아닌 꽃사과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또 산단을 첩경해당이라 부른다고 기록하여 조선 후기에는 조선에서도 명자나무를 해당이라 부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도 명자나무를 해당이라 불렀음은 나카이 다케노신<sup>中井 猛之進</sup>이 작성한 『조선삼림식물편<sup>朝鮮森林植物篇</sup>』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에 따르면 식민통치기 한반도에서는 풀명자나무와 노랑해당화 두 종이 해당화라는 명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문헌에서 나타나는 해당이라는 식물명을 오늘날에 번역함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양귀비나 두보와 얽힌 고사 등 해당과 관련된 중국의 고사는 꽃사과 내지는 명자나무와 관련된 고사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Rosa rugosa*와 관련하여 이러한 고사를 언급하는 오류는 피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고문헌의 번역에 있어서도 식물명 해당이 언급된 경우, 내용 중의 식물 특성 묘사 및 문맥을 감안하여 실제 식물과 상관없이 중국의 고사나 문헌을 인용한 것인지, 당대 통용되던 용례에 따라 *Rosa rugosa*를 지칭한 것인지, 혹은 중국의 용례를 따라 꽃사과류나 명자나무를 지칭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한 뒤 번역해야 오류를 피하고 식물명 해당과 관련된 혼동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연한 화색을 지닌 명자나무의 재배품종 ‘Fuji-no-mine’,(부사령, 위쪽)과 ‘Toyo-nishiki’(동양금, 아래쪽)

### 3. 문화적 관점으로 본 해당화

---

- ❁ | 생활문화 측면에서의 해당화
  - ❁ | 문학 및 음악에서의 해당화
  - ❁ | 미술 및 공예에서의 해당화
  - ❁ | 세시풍속에서의 해당화
  - ❁ | 현대문화에서의 해당화
-

### 3. 문화적 관점으로 본 해당화

## 자고의 소리는 멀고 해당화는 붉겠구나

한 깃발의 행색이 관동으로 떠나니 一麾行色到關東  
한식에 한창 무르익은 2월의 바람일세 寒食將闌二月風  
이번 걸음 말머리에서 응당 시를 얻으리니 此去馬頭應得句  
자고의 소리는 멀고 해당화는 붉겠구나 鷓鴣聲遠海棠紅

- 이견간李堅幹, 「송인 유관동送人游關東」

예로부터 사람들은 각기 거주하는 지역에 분포하는 식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어떤 종들은 식용이나 섬유용, 약용, 염료용, 건축재 등 실용적인 용도로 활용되었고, 어떤 종들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들에게 의해 관상용으로 쓰였다. 사람들이 다양한 용도로 식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식물에는 특정한 문화적 상징성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올리브 *Olea europaea* L.와 마돈나백합 *Lilium candidum* L.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수선화 *Narcissus spp.*와 튜립 *Tulipa spp.*이, 아즈텍 문명에서는 아프리카메리골드 *Tagetes erecta* L.가, 동아시아에서는 사군자 *四君子*와 모란 *Paeonia × suffruticosa* Andrews 등이 종교, 문학, 예술에 있어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다. 해당화의 경우 버나 목화처럼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가결하거나, 후추나 담배와 같이 경제적으로 중요하였던 식물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문화적으로 높은 격조를 지닌 것으로 간주된 식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소소하다면 소소할지 모르나 향료용, 식용, 약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왔고 시나 민요 등 여러 형태의 문학과 예술작품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하여 우리 조상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식물 중 하나였다. 이번 장에서는 해당화가 인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 ❁ | 생활문화 측면에서의 해당화

대개 어떤 식물이 사용되는 것은 다른 식물들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성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해당화는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나 그중 향기가 으뜸이다. 중동과 유럽에서 다마스쿠즈장미 *Rosa × damascena* Mill.나 센티폴리아장미 *Rosa × centifolia* L.를 향료와 약재로 사용해온 것과 같이, 동아시아에서는 해당화와 그 교배종의 꽃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송나라의 장방기張邦基가 지은 『목장만록墨庄漫錄』과 명나라의 전여성田汝成이 쓴 『서호유람지西湖遊覽志』에 인용된 『화사花史』의 내용에 따르면 남송 시절 궁중에서는 해당화의 꽃을 따서 용연향 및 사향과 섞어 향낭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를 패용하면 향이 오래도록 주변을 맴돌았기에 해당화에 배회화徘徊花 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한다. 또 정약용은 『아언각비』에서 『진씨화경陳氏花鏡』을 인용하며 “향기는 기름지고 짙은데, 말릴수록 더욱 강렬하다. 부채에 매다는 향낭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향료로서 해당화의 활용은 20세기 초 미국 농무부에 의해 청나라로 파견되어 다양한 유용식물을 미국에 도입한 원예가 프랭크 니콜라스 메이어 Frank Nicholas Meyer가 남긴 채집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북경 인근에서 재배되던 겹꽃의 해당화 재배품종을 채집하여 미국에 보내면서 당시 중국에서 해당화의 꽃잎을 차에 가향하는 용도와 방향제 및 방취제로 사용하였음을 보고하였다.

A double so-called Japanese rose, although it is a native of North China. This variety grows only 2 to 4 feet high and bears large magenta-colored flowers of very sweet odor. The petals of these

roses are very much esteemed by the Chinese for flavoring their tea, perfuming their rooms, and to use in toilet waters. They are grown in large quantities for these purposes.

- USDA, 「Bulletin No. 137. - Seeds and Plants Imported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 to March 31, 1908」

해당화는 유럽에 도입된 후에도 동아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진향 향기로 인해 주목받았고, 그에 따라 정유 생산을 목적으로 육종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1901년 프랑스의 농무부장관 알베르 비제 Albert Viger는 프랑스에 장미 정유 산업을 도입하기 위해 장미 육종가 쥘 레오폴 그라브로 Jules Léopold Gravereaux를 발칸반도로 파견하였는데, 그는 장미 정유 생산지를 견학하면서 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라브로는 귀국 후 장미 정유용 재배품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육종재료로 해당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해당화가 향기가 좋은데다가 강건하고 반복개화성도 지녔기 때문으로, 기존에 정유 생산용으로 재배되던 다마스크장미나 센티폴리아장미가 지닌 단점인 강건하지 못하고 일년에 한 번만 개화한다는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었다. 그는 동료 샤를 피에르 마리 코세-코세 Charles Pierre Marie Cochet-Cochet와 함께 해당화를 사용하여 ‘Rose a Parfum de L’Hay’와 ‘Roseraie de L’Hay’ 등의 재배품종을 육성하였는데, 결국 프랑스 정부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미 정유 산업의 도입을 포기함에 따라 이들 재배품종은 정유 추출 목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장미애호가들에게 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아 재배가 이어져오고 있다.

한편, 해당화는 식료품으로도 사용되었다. 『군방보』에는 해당화를 차나 술, 꿀에 넣어 향을 내는 데 쓴다는 내용이 적혀있으며, 『아언각비』에 인용된 『진씨화경』의 내용을 보면 과거 중국에서 해당화의 꽃잎을 설탕, 오매烏梅와 함께 찌어서 매괴장玫瑰醬이라는 시럽의 일종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중국 운남성雲南省 대리大理나 산둥성山東省 평음平陰 등지에서는 장미의 꽃잎을 설탕에 재워 매괴장, 혹은 매괴당玫瑰糖이라고 불리는 시럽을 만드는데, 물에 타서 마시거나, 호떡 등의 소로 넣거나, 요리에 향미를 내는 용도로 사용한다. 중국

에서 향료용과 식용으로 사용되는 해당화의 재배품종 및 교배종 중에서는 산둥성 평음에서 주로 재배되는 평음매괴平陰玫瑰/Rosa rugosa ‘Pingyin’<sup>1</sup>와, 해당화와 Rosa sertata Rolfe 간의 교잡에서 기원한 재배품종으로서 감숙성甘肅省 영등永登에서 주로 재배되는 고수매괴苦水玫瑰/Rosa ‘Kushui’의 두 재배품종이 유명하는데, 이 둘은 중국국가지리표지상품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아언각비』에서 정약용이 중국에서의 해당화 활용법을 논한 뒤 “조선 사람들은 일체 이러한 일을 모르고 있다”라고 적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에서는 해당화를 향료나 식재료로서 중국에서에서만 널리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문신 홍양호洪良浩의 문집 『이계집耳溪集』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실려 있고,

두만강변의 해당화 豆滿江邊海棠花  
 오뉴월 들어서야 처음으로 열매 맺네 五月六月初結實  
 마을 처녀애들 열명씩 무리지어 城中兒女十成羣  
 치마 치켜 올리고 광주리 끼고 한꺼번에 몰려가네 褰裳帶筐一時出  
 큰 놈은 살구 같고 신 맛은 매실이라 大者如杏酸如梅  
 먹을 것 적고 씨 많으니 다 먹지는 마소 肉少子多不堪啜  
 해당화 따는 것 왜 이다지 열심인가 問爾摘此何太勤  
 이곳은 대추며 밤 대신할 과실 없어서라오 此地無果代棗栗

- 홍양호洪良浩, 「해당화海棠花」

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실린 「해당매괴변증설海棠玫瑰辨證說」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는데,

맛은 매우 새콤달콤하여 먹을 만하며, 절여서 농익게 하면 맛이 더욱 좋아진다. 과일로서 쟁반에 올릴만하며, 어육과 과일 안주를 대신할 만하다. 흥

1 보통 해당화의 재배품종으로 간주되나, 가시가 적고 소지가 검붉은 빛을 띠는 등의 특성을 지녔다고 알려져 실제로는 해당화와 생열귀나무간의 중간교잡에서 기원한 재배품종일 가능성이 있다.

년이 들면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이 따서 향아리 안에 덮어놓는데, 이를 찢어서 익힌 것으로 기근을 넘긴다. 동서남북의 바닷가에서 모두 그러하다.

- 이규경李圭景,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이와 같은 기록들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해당화가 식용의 용도로는 쓰였으나 다만 꽃보다는 열매가 주 활용부위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sup> 이렇게 해당화의 열매를 식용으로 활용한 사례는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래 유럽에서는 *Rosa canina* L. 나 *Rosa rubiginosa* L. 등 유럽에 자생하는 장미류의 열매를 잼이나 시럽, 차, 스프 등으로 만들어 먹는 전통이 있었기에, 해당화도 그 도입 이후 자연스럽게 같은 용도로 활용되었다. 러시아 등지에서는 20세기 초 열매를 목적으로 해당화를 육종하기도 하였으며, 불가리아의 경우 해당화를 교배친으로 하는 과수용 장미 재배품종 'Nektar'를 육성하여 재배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해당화는 또한 약재로도 사용되었다. 약재로서 주로 활용된 부위는 꽃으로, 이기理氣, 해울解鬱, 화혈산어혈和血散瘀血 등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졌다. 명대에 간행된 『식물본초食物本草』에는 해당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주로 폐와 비장을 이롭게 하고, 간장과 담장을 도우며, 먹으면 그 향기가 감미로워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상쾌하게 한다.

- 적충狄冲·요문청姚文淸, 『식물본초食物本草』

청대에 간행된 『본초강목습유本草綱目拾遺』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 이와 같은 해당화의 전통적인 활용법은 조선시대에 구분없이 아가위로 통칭되었던 야생 *Malus* spp., *Pyrus* spp., *Sorbus* spp., *Crataegus* spp. 의 열매가 지닌 용도와 겹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 제 한자어 식물명 '海棠'의 어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관하여는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색과 백색 두 종이 있는데, 자색은 혈분으로 들어가고, 백색은 기분으로 들어간다. 줄기에 가시가 있고, 잎은 월계화와 비슷하나 톱니가 많이 나 있으며, 높이는 3~4자 정도이다. 자색 꽃을 약에 넣을 때 꽃잎을 쓰되 불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백초경百草鏡」에서는 “매괴화는 입하立夏 전에 꽃받침에 싸여서 아직 피지 않은 것을 채취한 다음 그늘에 말려서 쓰되, 불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향기롭고 성질이 따뜻하며, 맛은 달면서 약간 쓰다. 비경脾經과 간경肝經으로 들어가며, 혈을 조화롭게 하고 운행시키며, 기를 다스려 풍비를 치료한다. 「약성고藥性考」에서는 “매괴화의 성질은 따뜻하여 혈을 운행시키고 쌓인 것을 깨뜨린다. 다쳐서 어혈이 생기고 아플 때는 술에 담가 마시면 유익하다.”라고 하였다.

- 조학민趙學敏, 『본초강목습유本草綱目拾遺』

한편 조선후기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서 『의휘宜彙』에는 해당화의 뿌리 부위를 약용으로 사용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혈병이나 기침이 날 때는 해당화 뿌리 달인 물 3사발을 빈속에 작은 보시기로 여러 차례 복용하면 원기를 보하고 고기맛이 나게 하는 신기한 효과가 있다.

- 작자미상, 『의휘宜彙』

오늘날에도 한국의 민간에서는 해당화가 종종 약용으로 사용되는데 뿌리는 당뇨병에, 열매는 혈액순환 증진이나 불면증에 쓰이고, 꽃도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고 믿어진다. 유럽에서도 해당화는 간혹 약용으로 활용되는데, 특히 폴란드, 리투아니아, 러시아, 불가리아에서는 해당화의 열매와 종자에 비타민C와 비타민E의 함량이 높은 점을 활용하여 이를 건강보조제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 앞서 논한 용도 외에도, 해당화는 염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는데, 해당화의 뿌리껍질을 활용하여 갈색이나 회색 계열의 염료를 얻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 면사 그물로 고기를 잡던 시절 전남 영광에서는 그물에 해당화의 뿌리를 진하게 달여 만든 물을 먹었다고 한다. 이 물을 갈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갈을 먹이면 그물의 내구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 ❁ | 문학 및 음악에서의 해당화

그 실용적 용도와 별개로 해당화는 자체의 아름다움만으로도 사람의 이목을 끄는 식물이었으며, 그로 인해 나름의 문화적 상징성을 갖추게 되었다. 비록 동아시아에서 해당화를 비롯한 장미류는 모란과 작약 등에 밀려나 유럽이나 중동에서와 같은 문화적 위상을 누리지는 못하였지만, 시문과 민담, 민요 등에서 해당화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 중국의 경우, 해당화는 ‘玫瑰’라는 명칭의 ‘玫’자가 ‘媒’자와 발음이 같기에 ‘남녀를 잇는다’라는 상징성을 지녔다. 이로 인해 승려가 해당화 꽃을 함부로 꺾었다가 처녀 귀신과 정을 통하게 되었다던가, 집안이 쇠락하여 머슴살이를 하게 된 청년이 정원에서 해당화를 돌보다가 주인집의 딸과 이어지게 되었다는 등의 민담에서 주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한편 중국인들은 해당화의 가시에도 주목하였는데, 송나라의 요관 姚寬이 저술한 『서계총어 西溪叢語』에 언급되는 서른 가지 화훼의 별칭 중 해당화의 별칭은 자객刺客이었다. 이처럼 가시가 많다는 점으로 인해 해당화는 ‘위험함’이나 ‘아름답지만 상대하기 까다로운 여자’ 등의 상징성을 지니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해당화는 독자적인 상징성을 갖추거나 중국에서의 상징성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해당수미족의 고사에서 비롯된 ‘미인’의 상징성과 같이 꽃사과가 지녔던 상징성이 명칭혼동으로 인해 해당화에 잘못 부여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화 혹은 그 근연종에 꽃사과의 상징성이 잘못 부여된 시문으로 다음과 같은 작품들을 들 수 있다.

누구를 위하여 얼굴을 곱게 단장했나 誰適爲容飾好粧  
 촌사람도 고고한 미를 완상할 줄 모르거니 村夫未解賞孤芳  
 두 공부는 어찌 끝내 읊지 않았던가 可堪工部終無詠  
 창주의 것만이 유독 향기 있는 것 아닌 것을 不是昌州獨有香  
 쓸쓸한 별궁에 구슬피 감혀 있는 진후인가 陳后幽悲離館寂  
 가없는 변방으로 멀리 출가하는 왕소군인가 王嬙遠嫁塞天長  
 근심어린 내와 처량한 안개 속에도 교태가 많아 愁煙慘霧多嬌態  
 지나가는 사람들 몇 번이나 애를 끊었나니 空使行人幾斷腸

- 오정석 吳廷碩, 「산촌의 해당화 山村海棠花」

봄이 저물 제 방초를 찾아가니 春暮尋芳卉  
 시냇가에 해당화가 가득하여라 溪邊滿海棠  
 붉은 비단이 새벽비에 젖은 듯 紫錦霑曉雨  
 붉은 꽃잎이 아침 햇살에 비친다 紅肉映朝陽  
 공부하는 이 꽃을 읊기 어려웠고 工部吟難着  
 파선은 이 꽃을 상세히 읊었지 坡仙詠盡詳  
 가시가 있다 싫어하지 말라 莫嫌芒刺在  
 노니는 이가 꺾어도 다치지 않네 遊客折無傷

- 이응희 李應禧, 「해당화 海棠」

한편 해당화는 여러 시문과 기행문에서 바닷가의 풍광을 나타내는 소재로도 주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해당화와 자고새는 관동의 영동지역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시문에 종종 등장하였다.

해당화 피어 있는 백사장 독에 海棠花發白沙堤  
 붉은 꽃 어지러이 말발굽에 묻혔네 紅艷紛紛沒馬蹄  
 이때 다시 육칠 리 길 가는데 時復行間六七里  
 문득 가지 위의 자고새 소리 들리네 忽聞枝上鷓鴣啼

- 안축 安軸, 「해당화 海棠」

금 자라 머리 위에 겹겹 산들을 이었어라 金黿頭戴山重重  
 두 언덕 끼고 달리니 청룡이 서린 듯하네 兩岸夾走盤青龍  
 하룻밤 새에 좋은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 一夜光風吹嫋嫋  
 해당화 여기저기 피어 붉은빛 널렸는데 海棠開遍紅鬆  
 뉘 집의 멋진 놀이인지 준마가 울어 대라 誰家幽賞駿馬嘶  
 떨어진 꽃 낭자하여 말발굽에 번드치네 落花狼藉翻雄蹄  
 자고새는 날아왔다가 놀라 떠나지 않고 鷓鴣飛來不驚去  
 해 저물자 다시 나뭇가지에 올라 우누나 日暮更上梢上啼

- 서거정 徐居正, 『평해팔영 平海八詠』 中 「해당안 海棠岸」

생각하면 옛날에 큰 고개 동쪽을 구경할 때 憶昨遊觀大嶺東  
 그대와 함께 시와 술로 봄바람을 맞았다 與君詩酒趁春風  
 죽루삼척 죽서루에 구름이 흩어져 푸른 산이 나왔고 竹樓雲散青山出  
 경포강릉 경포대에 하늘이 맑아 푸른 바다가 비었었다 鏡浦天晴碧海空  
 고래 물결은 어지러이 흰 모랫길을 침노했고 鯨浪亂侵沙路白  
 말 발굽은 가벼이 붉은 해당화를 찾았다 馬蹄輕躡海棠紅  
 일생의 의기가 여러 해 이별했거니 一生意氣長年別  
 오늘에 어찌 다시 제비와 기러기 뒀을 건디랴 此日那堪更燕鴻

- 홍귀달 洪貴達, 「송 안변부사 박시행 부임 送安邊府使朴始行赴任」

해당화는 흰 모래 물가에 붉은 점들을 찍었으리니 海棠紅點白沙洲  
 생각컨대 문장 태수는 거기 노닐 것이다 想見文章太守遊  
 산과 물로는 영가도 아마 여기에 밀 가지 않으리니 山水永嘉應不下  
 어찌하면 내왕하여 풍류를 한 번 겨누어 볼꼬 若爲來往校風流

- 채우 蔡祐, 「수복주기영해이부사숙기 守福州寄寧海李府使叔琪」

한편, 해당화는 우리나라의 바닷가 마을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기에 우리 민족정서의 바탕에 친밀한 꽃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에 따라 해당화는 상류층의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민요나 굿의 사설, 판소리 등 서민들이 향유하던 예술작품에서도 소재로 자주 활용되었다.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는 왜 피나  
 모춘 삼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 우나.

- 「정선아리랑」

몽금이 포구가 좋다고 하여도 정든 임 없으면 적막강산  
 몽금포 백사장 해당화 붉고요 푸른 솔가지엔 두루미 앉았네  
 장산곶 마루에 새 소식 들리니 원포귀범 遠浦歸帆에 정든 임 오셨네

- 「몽금포타령」

꽃이 되야 오실라면  
 해당화나 목단화나  
 봉송화야 맨드래미  
 연죽이나 되아오소

- 「오구굿 사설」

그런데 이와 같은 서민예술에서 해당화는 독특하게도 삶의 유한성을 부각하는 요소로서 자주 사용되었다. 한국의 민요에서 해당화가 가사에 제재로 등장하는 곡은 약 40편인데, 이 중 34편의 곡에서 “명사십리 해당화야 네 꽃 진다 서러 마소”라는 관용구가 사용되었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네 꽃 진다 설워 마라  
 너는 명년 춘삼월에  
 황산 청산 꽃이 피면  
 오는 한량 가는 한량  
 너를 잡고 희롱치만  
 이 내 몸은 죽어지면  
 한번 살기 어렵드라  
 육신은 진퇴되고  
 영혼은 구름같이  
 흩터지니 그 아니  
 불쌍하나

- 「해당화타령」

운림초당 넓은 들에 백년초를 심어 두고 백년해로 하겠더니 단 삼 년이 못 지나서 영결초천 이별초가 되었구나. 저렇게도 좋은 풍신 언제 다시 만나 볼꼬.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한탄 마라. 너는 명년 봄이 되면 또다시

피려니와 우리 낭군 이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미망일세, 미망일세,  
이내 몸이 미망일세.

- 「장끼전」

이러한 상징성으로 인해 해당화는 상여소리나 굿판의 사설에서도 자주 등장하였는데, 한 예로 도당굿의 사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을 바라보니 송죽이 우거졌네. 또 한편을 바라보니 연못에 비단 같은  
금붕어는 여기저기서 놀고 있고, 또 한편을 바라보니 해당화 꽃이 만발하  
여 해당화야 해당화야 명사십리 해당화야 너는 무슨 팔자 좋아 한 번 치었  
다 지고 나면 내년 춘삼월에 또 피건만 우리 인생 한 번 죽어지면 짝이 나  
나 음이 나나 연결 정천 가는 길이 저승길이더라.

- 「도당굿 사설」

이러한 제의적인 성격의 민속예술에서 해당화는 가시가 많고 꽃과 열매가 붉은  
색을 띠는 점에서 벽사의 상징성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해당화가  
매년 춘삼월에 다시 핀다는 것은 설령 그 꽃과 잎이 지더라도 효력이 있음을 강조  
하는 것으로 제액초복除厄招福의 염원을 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해당화는 화려함과 진한 색상 때문인지 옛 민중에게 그리 높은 품격을 지  
닌 꽃으로 여겨지지 못한 듯하다. 해당화는 요염하고 성적 매력이 넘치는 미인이  
나 누구나 꺾을 수 있는 흥등가의 유녀에 비유되곤 하였는데, 일례로 『춘향전』의  
내용 중 광한루에 구경 나온 이 도령이 멀리 녹음 사이로 그네를 뛰는 춘향의 모습  
을 발견하고 방자와 대화를 나누며 춘향을 해당화에 비유하는 대목이 있다. 또 조  
선 후기 김천택金天澤이 엮은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실린 작자 미상의 시조 「편  
수대엽編數大葉」과 부산시 동래구 수영동에 전해오는 탈놀이인 「수영야류水營野  
遊」 중에는 창기를 해당화로 비유하는 가사가 있다.

모란牧丹은 화중왕花中王이요, 향일화向日花는 충신忠臣이로다

연화蓮花는 군자君子요, 행화杏花 소인小人이라

국화菊花는 은일사隱逸士요, 매화梅花 한사寒士로다

박꽃은 노인老人이요, 석죽화石竹花는 소년少年이라

규화葵花는 무당巫堂이요, 해당화海棠花는 창녀倡女로다

이 중에 이화梨花 시객時客이요, 홍도紅桃, 벽도碧桃, 삼색도三色桃는 풍류랑  
風流郎인가 하노라

- 「편수대엽」

이십세 등장군登將軍이 백수진인白鬚真人 잠간 만나 나라를 중흥하고 승상  
인수丞相印綬 받았으니 청춘소년 석죽화石竹花며, 설도雪圖 같은 묘한 일색  
옥루사창玉樓紗窓 비껴앉아 황혼백마黃昏白馬 야유 중에 추파 들어 송정送情  
하니 향기 좋은 해당화海棠花며, 선풍도골仙風道骨 사안석謝安石이 절대가인  
손을 잡고 사직으로 전도하며 동산 위에 올라 노니, 풍류랑風流郎은 홍도벽  
도紅桃碧桃 꽃구경도 좋거니와 원근산천 못새들이 경경을 좇아 날아든다.

- 「수영야류」

## ❁ | 미술 및 공예에서의 해당화

해당화는 문학작품이나 음악의 가사뿐만 아니라 미술과 공예품의 장식에서도  
소재나 모티프로 활용되었다. 회화에 있어 해당화는 화조도花鳥圖의 소재로 종종 사  
용되었는데, 해당화를 소재로 하는 조선시대 화조도로서 현전하는 것으로는 심사  
정의 「백합과 나비」와 오원 장승업의 「해당청금海棠靑禽」, 김수철의 「해당합소  
海棠含笑」, 그리고 왕우중의 「해당비취海棠翡翠」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해당화는 민화의 소재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본래 중국에서는 꽃사과가 이  
름의 ‘海棠’ 중 ‘棠’자의 발음이 ‘堂’자와 발음이 같은 점 때문에 도상학적으로 집안  
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동명이물인 해당화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는데, 해당화와 모란을 같이 그려 집안에 부귀영화가 흘러넘치

기를 기원하는 만당부귀滿堂富貴의 주제를 나타내기도 하였고, 여기예다가 옥란화 玉蘭花/Magnolia denudata Desr. 내지는 알바목련Magnolia × alba (DC.) Figlar까지 더하여 높은 직위까지 겸하는 옥당부귀玉堂富貴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한편 해당화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옷에 무늬로 많이 쓰였으며 자수와 화조 병풍의 소재뿐만 아니라 공예품을 장식하는 문양으로도 사용되었다. 『성종실록』을 보면 명나라에 보낼 물품으로 해당화합아海棠花合兒가 나오는데, 이는 해당화 문양으로 장식되었거나 해당화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추측된다. 또 해당화는 가화假花로 만들어져 궁중의 연회 등에서도 활용되었다고 한다.

## ❀ | 세시풍속에서의 해당화

해당화는 세시풍속과 관련된 전통놀이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서해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져 오는 ‘등바루놀이’이다. 등바루놀이는 1950~60년대까지 충남 서해안의 장고도, 안명도, 간월도, 원산도, 고대도를 비롯한 섬마을과 해변에서 널리 전승되었던 놀이로, 해당화가 만발한 음력 4월 전 후에 이루어졌으며, 15~18세의 마을 처녀들이 해변에 모여서 두 편으로 나누어 하루 동안 어느 편이 해산물을 더 많이 채취하는지, 또 누가 채취한 해산물이 가장 큰가를 겨루는 놀이였다.

등바루놀이가 시작되기 전날에는 마을 처녀들이 다같이 굵은 돌들을 모아서 삼면에 돌담을 쌓은 타원형의 돌방을 만들었는데, 남성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바닷가 쪽에 입구를 내었다. 돌방은 처녀들이 화장도 하고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므로, 바닥은 자갈로 평평하게 다듬고 고운 모래를 퍼서 정성껏 꾸몄다. 또한 돌담 한편에 모래로 낮은 단을 쌓고 이를 부뚜막 또는 조왕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물질할 때 쓰는 어항을 올려놓고 해당화를 꽂아 두었다. 놀이하는 날이 되면 처녀들은 각자 가져온 물품을 이곳에 넣고 해당화와 짚레꽃을 꺾어 돌방을 장식한 다음, 위에 대나무를 걸쳐 지붕을 만들고 역시 짚레꽃과 해당화로 곱게 단장했다. 이 놀이의 유래나 어원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해산물 채취가 한창인

절기에 놀이를 함으로써 해산물 채취기술도 익히고 경쟁을 통해 일의 능률을 한층 높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성년식 같은 놀이로 해석된다고 하며, 또 섬마을의 풍어와 평안을 기원하는 성격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 밖에 놀이문화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지만 ‘사천풍어제’라는 제의활동이 있다. 사천풍어제는 강릉시 사천면 어민들이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로, 2년에 한 번씩 음력 4월에 날을 잡아 지낸다. 제당祭堂은 두 곳인데 ‘할아버지당’, ‘할머니당’으로 불린다. 이 중 할머니당은 해사海事を 돌보아 주는 해당海堂이라 불리며 해당화를 신목으로 모신다.

## ❀ | 현대문화에서의 해당화

현대에 들어서도 해당화는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작품에 소재로 활용되었다. 여러 시인과 가수들이 해당화를 노래했고 「대련의 해당화」처럼 제목에 해당화가 들어가는 영화들도 만들어졌다. 현대문학 중 해당화가 소재로 사용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한용운의 시 「해당화」와 박경리의 소설 『토지』를 꼽을 수 있다. 한용운과 박경리의 작품에서 해당화는 한 시대를 상징하는 요소로 등장한다. 한용운의 시 「해당화」에서는 독립을 염원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해당화가 피도 돌아오지 않는 입에 대해 느끼는 야속함과 그리움으로 빗대어 표현하였으며,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서는 주인공 서희가 조국이 해방되었던 소식을 듣고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는 해당화의 가지를 맨 손으로 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통해 민족의 염원이었던 광복의 달성에서 비롯된 격정적인 감정을 전달하였다.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랬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입니다그려.  
시름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이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돌도 되고 셋도 됩니다.

- 한용운, 「해당화」

서희는 투명하고 하얀 모시 치마저고리를 입고 해당화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중략) 양녀 양현에게서 해방 소식을 들은 서희는 해당화 가지를 휘어잡았다.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서희는 자신을 휘감은 쇠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 박경리, 『토지』

현대 미술작품으로는 ‘한국의 고갱’이라고 불리는 이인성의 「해당화」가 유명하다. 한용운의 시 「해당화」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그림으로, 다소곳이 앉아 해당화를 지켜보는 여인의 모습에서 애잔함이 느껴진다.

음악으로는 국민가수로 손꼽히던 이미자가 부른 「섬마을 선생님」, 「꽃피는 포구」 등의 가요와 누구나 한 번쯤은 불러보았을 동요 「바닷가에서」가 있다. 「섬마을 선생님」 등의 가요에서 해당화는 옛되고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해당화 피고지는 섬마을에  
철새따라 찾아온 총각선생님  
열아홉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선생님  
서울엘랑은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 이미자, 「섬마을 선생님」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나 혼자 걷노라면 수평선 멀리  
갈매기 한두 쌍이 가물거리네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에서

- 「바닷가에서」

자생지의 개발과 남채로 인해 전국의 군락지가 쇠퇴하기 전 해당화는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었다. 일찍이 꽃의 빛깔이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향기가 아름다워 널리 사랑받았던 해당화는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서 먹을거리가 되고 약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삶과 함께 해온 소중한 꽃이라고 할 수 있다.

## 4. 해당화의 재배사와 재배법 및 재배품종들

---

- ❁ | 동북아시아와 우리나라에서의 해당화 재배사
  - ❁ | 구미권에서의 해당화 재배사
  - ❁ | 해당화의 재배 방법
  - ❁ | 해당화의 번식법
  - ❁ | 해당화의 식재디자인 활용
  - ❁ | 해당화의 주요 재배품종 및 교배종
-

## 어떻게 하면 이 꽃들을 땃집에 옮겨 가서

긴 독이 아스라이 바닷가에 죽 뻗쳐 있고 長堤隱隱臨海澗  
 갠 백사장 흰 파도가 서로 삼키고 뱉고 하는데 晴沙雪浪相吞吐  
 무수한 해당화는 땅 가득 여기저기 피어서 海棠無數撲地開  
 말발굽에 채어 붉은 비를 뿌리는 듯하여라 馬蹄蹴踏飄紅雨  
 수많은 꽃잎들이 팔랑팔랑 끝없이 날려 紅飄萬點飛無邊  
 물씬물씬 맑은 향기가 말 언치에 어리누나 清香冉冉凝歸鞦  
 어떻게 하면 이 꽃들을 땃집에 옮겨 가서 安得移歸茅屋下  
 오래도록 이 꽃 마주하여 취해 잠들어 볼꼬 長年對此供醉眠

- 후략 -

- 최립 崔岵, <해당화 海棠>

해당화는 매우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지닌 식물이다. 따라서 자생지인 동북 아시아 각국에서 오래전부터 뜰이나 밭에서 가꾸어져 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 해당화는 18세기 말엽 즈음 유럽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는데, 유럽에서도 그 꽃과 열매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관상용으로 종종 재배되었다. 유

럽 사람들은 해안지대의 험난한 환경에서 진화하면서 해당화가 지니게 된 생리적 강건함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생태적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화를 다른 장미류와 교배시켜 해당화의 강건함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꽃색과 모양을 추가로 갖춘 여러 재배품종을 육성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오늘날, 꽃과 열매가 아름다우면서도 식물체가 튼튼한 해당화는 우리 주변의 정원과 공원에서 널리 활용될 여지가 많다. 이번 장에서는 해당화 재배의 역사, 재배법, 번식법, 해당화의 재배품종 및 해당화가 그 교배친<sup>1</sup>으로 활용된 장미 품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 | 동북아시아와 우리나라에서의 해당화 재배사

동양에서 해당화가 언제부터 관상식물로서 정원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당 말기 서인徐寅의 시 「사직순관무제이도매괴화司直巡官無諸移到玫瑰花」에 해당화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최소한 당나라 말기부터는 화훼로서 재배가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이후로도 해당화는 장익張翥이 저술한 「화경花經」과 요관姚寬의 저서 「서계총어西溪叢語」 등 송대의 문헌에서도 화훼로서 언급되었으며, 왕세무王世懋가 저술한 「학포잡소學圃雜疏」 등 명대의 문헌에서도 정원식물로서 언급되어 꾸준히 관상용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해당화의 재배와 관련된 문헌 중 명대의 인물 왕세정王世貞이 자신의 친구 장백기張伯起가 가꾸던 원림 구지원求志園을 묘사한 「구지원기求志園記」를 통해서도 당대 해당화의 구체적인 식재방법을 엿볼 수도 있다. 왕세정은 장백기의 원림 입구에 마당을 둘러싼 ‘병屏’이 있고 이 병에 도미와 매괴를 혼식하여 향기가 진하다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병은 죽병竹屏을 이르는 말로 대나무를 엮어 틀을 만들고 그에 각종 장미류를 비롯한 만경화목류를 심어 기어오르게 가꾸는 중국의 전통적인 식재기법이

1 새로운 품종을 육종할 때 원하는 형질을 도입하기 위해 교배에 활용한 계통 및 품종, 꽃가루를 제공하는 교배친을 화부친(혹은 부친, 부분)으로 칭하고, 화분친의 꽃가루로 수정되어 종자를 생성하는 교배친을 종자친(혹은 모친, 모본)으로 칭한다.

다. 해당화는 관목이긴 하나, 죽병을 꾸미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대에 이르러서도 해당화와 그 근연종들은 「광군방보」나 오기준吳其濬의 「식물명실도고植物名實圖考」 등의 문헌에서 정원식물로서 꾸준히 언급되었다. 청나라에서의 해당화 재배는 당대 중국을 방문하였던 유럽인들의 기록으로도 뒷받침되는데, 1830~1831년 시베리아로부터 몽고를 거쳐 북경에 이르는 지역을 탐사한 러시아 식물학자 알렉산더 폰 분게Alexander Georg von Bunge가 중국 북부 지역에서 채집한 식물들을 정리한 목록인 「Enumeratio Plantarum Quas in China Boreali Collegit Dr. Al. Bunge. Anno 1831.」를 살펴보면 해당화와 그 근연종들의 다양한 변종이 중국의 정원에서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한 『The Journal of the Horticultural Society of London』의 제 3권에는 영국의 원예가 로버트 포춘Robert Fortune이 1848년경 상하이의 한 정원에서 겹꽃이 피는 해당화의 교잡종을 발견하여 영국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당화는 관상식물로서 정원에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숙종肅宗이 사루紗樓에 나와서 중광전重光殿 옥매괴화玉玫瑰花 시를 짓고 사신들을 불러서 화답하여 올리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소 고려 중기부터는 해당화를 정원에서 재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여러 조선시대 문헌에서 해당화를 정원에서 재배했다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예컨대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삼았던 조선 전기의 문인 서거정徐居正의 문집 「사가집四佳集」에는 정원에 심긴 해당화를 묘사한 시 여러 편이 실려 있다.

한낮의 더운 바람은 주렴 가득 불어오고 日午薰風吹滿簾  
남창 앞엔 가랑비가 또 부슬부슬 내리니 南窓細雨更廉纖  
만발한 해당화는 머리 숙인 채 젖어 있고 玫瑰爛熳低頭濕  
영롱한 작약꽃은 안면 가득 흠뻑 젖었네 芍藥玲瓏滿面霑  
양부의 개구리는 작은 물에서 울어대고 兩部蛙兒鳴小水  
한 쌍의 제비는 앞 처마에서 지저귀누나 一雙鸞子語前簷

유연히 또 전원에 돌아갈 흥취 발동하여라 悠然又起歸田興  
고사리는 재차 살찌고 죽순도 달콤하겠지 山蕨再肥筍亦恬

- 서거정徐居正, 「즉사卽事」

해당화가 성대히 핀 걸 일찍이 보았거니 曾見玫瑰滿意開  
이기 위에 낭자히 떨어진 게 가엾기도 해라 可堪狼藉點蒼苔  
작은 계집애는 자고 일어나 할 일이 없어 小娥睡□□無事  
떨어진 꽃을 주워서 천천히 걸어오는구나 爲拾殘紅緩步廻

- 서거정徐居正, 「즉사卽事」

깊고 후미진 한 동산에 비가 처음 갠 때에 一園深僻雨晴時  
지팡이 나막신 차림에 한가히 울을 지날 제 杖屐閑行過短籬  
저녁나절 실바람은 소매 가득 불어오는데 落日小風吹滿袖  
해당화 가지 위엔 피꼬리 소리 곱기도 해라 玫瑰梢上囀鶯兒

- 서거정徐居正, 「소원小園」

또 비슷한 시기의 문인인 성현成俔의 시 「매괴」를 보면 그도 정원에 해당화를 가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그루 매괴나무가 있으니 一朵玫瑰樹  
전하는 말에 해당화라 이르는데 人傳是海棠  
이슬은 내려 꽃가루를 가벼이 씻고 露華輕洗粉  
바람은 불어 향기를 살살 풍겨주네 風骨細通香  
처음엔 붉은 비단을 오렸나 했더니 始訝紅羅剪  
끝내는 비단 우산을 펼친 듯하구나 終成錦繡張  
어여빠라 더없이 고운 자태 뽐내며 憐渠矜絕艷  
글 읽는 책상 가까이 피어 있는 게 開近讀書床

- 성현成俔, 「매괴玫瑰」

또한 조선 중기의 문인 이식李植의 시 중에서도 정원에 가꾸어지고 있는 해당화를 언급한 시 두 수가 있는데, 그 중 한 수는 이식이 조문수曹文秀의 초당에 머무르던 중 그 풍광을 묘사한 시로 정원에 심긴 식물로서 대나무와 더불어 해당화가 언급되었으며,

크고 작은 대나무들 이제 막 순이 솟고 篠簜初抽笋  
 해당화는 이미 모두 꽃잎이 떨어진 때 玫瑰已落花  
 텅 빈 정자에는 물 달이 안성맞춤이요 虛亭宜水月  
 베갯머리 들리나니 어부들의 노래로다 高枕有漁歌  
 옛 자취 심상히 돌아보는 그 사이에 舊迹尋常見  
 가슴속에 묻어나는 시대의 걱정이여 時憂一半加  
 도원을 어찌 쉽게 차지할 수 있으리요 桃源那易就

우리 모두 벼슬길에 발을 잘못 디뎠는걸 簪紱各蹉跎

- 이식李植, 「자실子實의 초당에서 묵으며」

다른 한 수는 이식이 일직촌一直村의 권씨 별장에 방문하였을 때 별장에서 가꾸어지고 있던 식물에 대해 지은 12수의 시 중 하나로, 해당화를 주제로 하였다.

해당화 어떡하면 더 새롭게 단장할까 玫瑰爭得比新粧  
 하늘이 가인 보내 홀로 뽐내게 하였어라 天遣佳人獨擅場  
 시인의 한평생 한을 푸는 데에는 解釋詩人一生恨  
 동방에 바로 해당향이 있나니 東方却有海棠香

- 이식李植, 「일직촌一直村의 권씨 별장에서 절물節物을 읊은 절구」中



▲ 경복궁 교태전 아미산에 식재된 '만첩해당화' © geobook

또 조선 후기의 문인 김창협(金昌協)이 지은 시 중에서도 해당화가 언급되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뜨락이라 수십 평 좁은 동산에 中庭數畝地  
 손수 심은 초목이 무성도 하다 手種卉木繁  
 척박한 모래땅이 언제나 유감 常恨沙土瘠  
 기름진 땅 비교가 될 수 없지만 難與膏壤論  
 요즘 들어 그래도 위안되는 건 今來頗慰意  
 숲 우거진 정원이 되어 가는 것 稍欲成林園  
 개나리가 못물을 반이나 덮고 連翹蔭半池  
 수양버들 대문보다 높이 자라고 垂柳高過門  
 서향 그리고 해당화 瑞香及玫瑰  
 철쭉 그리고 산반화 躑躅並山礬  
 하나하나 모두가 잘도 자라서 一一各成長  
 가지와 잎 무성히 우거졌다오 枝葉鬱以蕃  
 하지만 늙은 국화 가련하게도 獨憐老叢菊  
 초췌한 모습으로 겨우 살았네 憔悴僅有存  
 포기를 복돋우는 때를 놓치니 培壅苦不早  
 잡초 같은 그 모습 누가 높일까 蕭艾誰見尊  
 서리 이슬 내릴 때가 멀지 않기에 亦知霜露近  
 지금 우선 국화 뿌리 복돋워주니 且復鋤其根  
 내년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明年好作花  
 만족스레 술잔에다 띄워봤으면 滿意浮我樽

- 김창협(金昌協), 「산으로 돌아오다」

또한 시문 외에도 해당화의 정원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은 여럿 있는데, 한 예로 조선중기의 문신 이문건(李文健)이 41세부터 73세까지 날마다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묵재일기(默齋日記)」에 적힌 기록을 들 수 있다. 이문건은 1546년 을사사화



▲ 지볼트의 「일본식물지」에 실린 해당화 삽화

에 연루되어 경북 성주로 귀양을 가게 되었으나, 유배지에서도 재산을 모아 1551년부터는 처가가 위치한 충북 괴산에 해배 후 거주할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하였다. 이 때 성주에서 각종 화목류를 구해 괴산의 집에 보내어 심도록 하였는데, 1552년 10월 10일, 1553년 2월 14일, 1554년 4월 15일의 기록에 해당화가 언급되어 해당화가 관상용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몇몇 문헌에는 해당화의 단순한 식재 여부뿐만 아니라, 식재 방법과 식재의 목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예컨대, 정약용이 제자 황상黃裳에게 선비의 이상적인 주거에 대해 논한 글인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을 보면 해당화를 채소밭 주위에 울타리로 둘러 심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철에 진한 향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며, 장혼張混의 「평생지平生志」에는 울 아래에 뽕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 무궁화와 해당화를 심어 빈틈을 메운다는 문구가 나와 해당화가 생울타리로 활용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박지원朴趾源이 면천 군수로 재직하던 중 관아의 퇴락한 관사를 중국식으로 고쳐 지은 일을 기록한 글 「공작관기孔雀館記」에도 역시 해당화의 구체적인 식재방법이 묘사되어있는데,

“뜰 중간을 가로질러 대를 엮어 시렁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구기자, 해당화, 야당화野堂花<sup>2</sup>, 박태기나무를 섞어서 심으니, 길게 뻗은 가지와 부드러운 념쿨이 얽히고 우거져 어릿어릿 비치면서 앞을 가려 봄여름에는 병풍이 되고 가을과 겨울에는 울이 되니, 병풍에는 어우러진 꽃이 제격이고 울에는 쌓인 눈이 제격이다.”

- 박지원朴趾源, 「공작관기孔雀館記」

라고 하여 해당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중국풍의 죽병竹屏을 조성하는데 활용된 예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야당화는 생열귀나무, 찔레꽃, 자생 Malus속 수종(아그배나무, 아광나무 등), 팔배나무 등 다양한 식물을 지칭하는데 혼용되어온 명칭으로, 여기에서 야당화로 지칭된 식물이 무엇인지는 그 특성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없어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울타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찔레꽃이나 생열귀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엘렌 앤 윌모트의 「The Genus Rosa」에 실린 해당화와 그 교잡종들의 세밀화.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해당화, *Rosa* 'Calocarpa' (해당화와 월계화 간의 교잡종), *Rosa* × *iwara* Sieber ex Regel (해당화와 찔레 간의 자연교잡종), *Rosa* 'Jacksoni' (돌가시나무와 해당화간의 교잡종), *Rosa* × *warleyensis* E.Willm. (*Rosa blanda* Aiton 와 해당화간의 교잡종)

## 🌸 | 구미권에서의 해당화 재배사

그러나 해당화가 동북아시아에서만 재배되어온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화는 유럽과 미국에도 도입되었으며, 특히 겨울철이 추워 다른 장미류를 재배하기 어려운 북해와 발트해 연안, 러시아 내륙, 캐나다, 알래스카 등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해당화가 처음으로 유럽의 식물학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튜베리가 그 학명을 「Systema Vegetabilium」에 출판한 1785년이지만 이때 실제 해당화 식물체가 유럽으로 도입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히 어느 해 어느 나라에 최초로 도입되었는지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다만 관련 문헌 중 1811년 영국의 식물학자 윌리엄 타운센드 에이튼 William Townsend Aiton에 의해 출간된 큐 왕립 식물원의 보유식물 목록 「Hortus Kewensis」 제 2판을 보면 *Rosa ferox* 라는 이름으로 해당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런던 해머스미스에서 양묘장을 운영하던 원예가 루이스 케네디 Lewis Kennedy와 제임스 리 James Lee가 1796년경 해당화를 영국에 최초로 도입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이 해당화의 유럽 도입에 있어 가장 확실한 최초연도이다. 또 프랑스에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1809년에 출판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농업 사전 Dictionnaire raisonné et universel d'agriculture」<sup>3</sup>의 *Rosa rugosa* 항목에 “일본이 원산지로, 파리 인근의 몇몇 정원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2피트 이상의 높이로 자라고, 봄이 끝날 무렵 개화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어

3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농업 사전」에는 상기한 내용과 더불어 당대 해당화와의 혼동이 존재하였던 ‘캄차카장미 le rosier de Kamtschatka’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는데, 이 ‘캄차카장미’는 라페루즈 백작 장 프랑수아 드 갈롭 Jean-François de Galaup, comte de Lapérouse의 탐험대를 통해 프랑스에 도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페루즈 백작의 탐험대는 1785년 프랑스 브레스트에서 출항한 뒤 칠레, 하와이,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마카오, 마닐라, 한반도, 사할린, 쿠릴열도를 거쳐 1787년 9월 7일 캄차카 반도의 페트로파블롭스크에 기항하였는데, 이때 승선인원 중 바르텔레미 드 레셀 Barthélemy de Lesseps이 홀로 탐험기록물을 지니고 하선하여 1년의 여정 끝에 프랑스로 귀환하였다. 이후 라페루즈 백작의 탐험대는 솔로몬제도의 바니코로 섬에 좌초하여 끝내 프랑스로 귀환하지 못하였으므로, ‘캄차카장미’가 라페루즈 백작의 탐험대를 통해 유럽에 도입되었다면 ‘캄차카장미’의 최초 도입연도는 1788년이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1820년 아돌프 드 세스넬 Adolphe de Chesnel이 저술한 「장미의 역사 Histoire de la rose」를 살펴보면 해당화가 라페루즈 탐험대 덕분에 프랑스로 도입되었으며, 이들을 기리기 위해 해당화를 캄차카라고도 부른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단순히 해당화와 ‘캄차카장미’를 혼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처럼 두 분류군간의 혼동이 심하였고 또 ‘캄차카장미’와 해당화 두 분류군 모두 캄차카 반도에 분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드 레셀에 의해 두 종류가 한꺼번에 도입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경우 제임스 에드워드 스미스 James Edward Smith가 에이브러햄 리스 Abraham Rees의 「백과사전 Rees's Cyclopaedia」에 기술한 내용에 따르면 ‘캄차카장미’가 1791년 즈음에는 이미 런던 첼시의 약용식물원 Chelsea Physic Garden에서 재배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상 드 레셀이 프랑스로 도입한 것이 영국으로 다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 서울로 7017(위)과 국립박물관(아래)에 식재된 해당화. 해당화는 건조하고 폭염이 잦으며 염분과 오염 물질이 많은 도심지의 환경에서도 적응성이 뛰어나다.

늦어도 1809년경에는 유럽에 해당화가 도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말경의 최초 도입 이후로도 해당화는 여러 경로를 통해 유럽에 재차 도입되어 재배되었다. 1823년부터 1829년까지 나가사키 데지마의 네덜란드 무역기지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던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는 1824년부터 일본산 식물들을 수집하여 레이덴 식물원에 보냈고, 또 1829년 그가 지도를 밀반출한 혐의로 일본에서 추방되었을 때도 그때까지 수집하였던 식물들을 가지고 출국하여 일부는 네덜란드로 돌아가던 중 기착한 자바의 보고르 식물원에, 나머지는 네덜란드에 도착한 후 겐트 대학 식물원에 기증하였다. 이후 1842년 지볼트는 네덜란드 왕립원에진흥회Koninklijke Nederlandsche Maatschappij tot Aanmoediging van den Tuinbouw에 가입하고 레이덴 근교에 농장을 지어 레이덴 식물원과 겐트 대학 식물원으로부터 돌려받은 일본산 식물을 재배 및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자바에 남겨둔 일본식물 회수 및 일본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종 도입을 위해 채집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지볼트를 통해 흰색의 꽃이 피는 해당화의 재배품종인 *Rosa rugosa* 'Alba' 와 해당화와 짙레꽃 간의 자연교잡종인 *Rosa* × *iwara* Siebold ex Regel 가 유럽에 도입되었다.

지볼트 이후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48년경 영국의 로버트 포춘Robert Fortune이 상하이로부터 겹꽃의 해당화 교배종을 영국에 도입하였다. 또 러시아 식물학자 카를 요한 막시모비치Carl Johann Maximovich에 의해서도 해당화가 유럽에 재차 도입되었는데, 1860년부터 1864년까지 일본에서 식물을 채집하였던 그는 해당화의 종자도 채집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 식물원으로 보내었고,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식물원의 원장이었던 에두아르트 아우구스트 폰 레겔Eduard August von Regel은 이를 받아서 자색과 백색의 홑꽃이 피는 식물들과 자색의 겹꽃이 피는 식물을 얻었다. 이 중 홑꽃 내지는 반겹꽃으로 피는 것들은 벨기에의 식물학자 장 쥘 린덴Jean Jules Linden과 프랑스의 원예가 에두아르 프랑수와 앙드레Édouard François André가 수고와 수형, 소엽의 매수, 탁엽과 화경, 꽃받침의 특성, 화색 등의 특성에 있어 해당화와 구분된다고 보고 새로운 종으로 취급하여 *Rosa regaliana*라고 명명하였으나, 오늘날은 인정되지 않고 *Rosa rugosa*의 이명으로 취급되고 있다. 한편 겹꽃이 피는 것들은 폰 레겔에 의해 *Rosa rugosa* var. *plena* Regel로 명명되었는데, 1877년 저술된 「Tentamen Rosarum

Monographiae」에 실린 원기재문을 보면 'Kaiserin des Nordens'라는 이름으로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순수한 해당화가 아닌 생얼귀나무와 해당화간의 교잡종으로 추정되는 이 재배품종은 Taiikoun 등의 이명으로도 불리며 현재까지도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구미권에 도달한 해당화와 그 교배종들은 그 강건함 덕에 유럽의 정원사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1875년 출간된 요제프 게르하르트 주카리니Joseph Gerhard Zuccarini와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의 「일본식물지Flora Japonica」에는 해당화에 대해 유럽의 정원, 특히 토양이 사질인 정원에서도 매우 잘 자란다는 평이 실려있으며, 또 왕립원예협회의 빅토리아 명예훈장Victoria Medal of Honour과 왕립장미협회Royal National Rose Society의 Dean Hole Medal을 받았던 영국의 여류 정원사 엘렌 앤 윌모트Ellen Ann Willmott 역시 그녀가 저술한 「The Genus Rosa」에서 “모든 장미류 중 가장 까다롭지 않은 장미이며, 그 어느 위치나 토양에도 다 적합하다”라고 평하였다.

해당화는 당시 구미권의 정원에서 재배되던 여러 장미 야생종들과 우발적으로 교잡하여 *Rosa majalis* Herrm. 와의 교잡종인 *Rosa* × *acantha* Waitz ex Link, *Rosa roxburghii* Tratt. 와의 교잡종인 *Rosa* × *micrugosa* F.Henkel, *Rosa arvensis* Huds. 와의 교잡종인 *Rosa* × *paulii* Rehder, *Rosa blanda* Aiton 와의 교잡종인 *Rosa* × *warleyensis* Baker 등 새로운 교잡종들을 형성하기도 하였고, 해당화의 강건함과 독특한 관상가치, 꽃의 향기에 주목한 원예가들에 의해 새로운 장미 재배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육종재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890년에는 프랑스의 원예가 조르주 브뤼앙Georges Bruant이 월계화와 해당화를 교배시켜 *Rosa* × *calocarpa* (André) W.E.Gumbleton 를 작출하였고, 또 19세기 말 바이에른 왕국의 아마추어 장미 육종가 헤르만 뮐러Hermann Müller 는 해당화를 활용되어 'Conrad Ferdinand Meyer', 'Germania A', 'Germania B', 'Thusnelda' 등의 재배품종을 작출하였으며, 비슷한 시기 프랑스의 쥘 레오폴 그라브로Jules Léopold Gravereaux와 샤를 피에르 마리 코세-코세Charles Pierre Marie Cochet-Cochet는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미 정유 생산을 목적으로 'Rose à parfum de L'Hay' 등의 재배품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해당화를 활용한 신품종 장미 육성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지역은 기후가 온화한 서유럽보다는 북유럽과 북미, 특히 겨울이 매우 춥고

건조한 북미 중부와 북부지역이었다. 1892년에는 오늘날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전신이 되는 아이오와 농업대학에서 해당화를 활용한 장미 신품종 육성과 해당화를 교배친으로 하는 재배품종들의 시험재배 및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또 1961년에는 캐나다 농업농산식품부 소속의 육종가 펠리시타스 스베즈다(Felicitas Svejda)가 오타와 의 캐나다 중앙농업시험장(Central Experimental Farm)에서 해당화를 활용한 육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으면서도 반복개화성을 지닌 장미 품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스베즈다의 육종 프로그램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해당화와 더불어 해당화와 돌가시나무간의 교배를 통해 작출된 'Max Graf'의 실생묘에서 다시 선발된 재배품종인 'Kordesii'가 주요 육종재료로 활용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1968년부터 1999년까지 총 25개 재배품종이 작출되었다. 이들 재배품종은 통틀어 Canadian Explorer Rose 라고 불리며, 다른 장미류를 키우기 힘든 냉대기후대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미권에서는 수많은 해당화의 재배품종들이 작출되었는데, 개중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는 품종들도 있으나 약 200여 품종이 문헌상으로 확인된다고 한다.<sup>4</sup>

## ❁ | 해당화의 재배방법

해당화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화가 적응해온 자생지의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화가 분포하는 곳은 주로 해안지대의 벌이 잘 들고 배수가 잘되는 위치이다. 이처럼 건조, 염, 자외선 등 각종 환경 스트레스의 발생이 극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은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두터운 털이나 큐티클 층을 발달시키거나, 다양한 이차대사산물을 합성하는 등의 특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들은 환경 스트레스의 극복뿐만 아니라 각종 곤충 등 초식동물에 의한 섭식 및 진균 등 기생생물에 의한 감염에 대

<sup>4</sup> 한편 해당화의 원산지인 동북아시아에서는 오히려 품종개량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1980년대 중국에서 재래품종인 평음매귀를 생열귀나무와 교배시켜 자지매귀(紫枝玫瑰/Rosa 'Zizhi', 분자지매귀(粉紫枝玫瑰/Rosa 'Fenzizhi', 백자지매귀(白紫枝玫瑰/Rosa 'Baizizhi' 등의 재배품종을 육성한 바 있다.

한 내성을 갖추는 데도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서 이러한 식물들은 생육에 있어 높은 광량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습윤하거나, 통풍이 불량하거나, 토양의 배수가 나쁜 환경 하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오히려 병해충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해당화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정원에 식재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해당화는 높은 광량을 요구하는 식물로,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소 6시간 이상은 직사광선이 드는 위치에 식재되어야 한다. 또한 배수가 불량한 점토질 토양에 식재할 경우 생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속도가 더딘 편이므로 가급적 배수가 잘 되는 위치에 식재해야 하고, 토질이 부득이하게 배수가 불량한 위치에 식재해야 하는 경우 높은 화단(raised bed)에 식재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화는 고온다습한 환경을 지닌 지역에서는 한랭한 지역에서도보다 병해에 약해질 수 있으며, 대체로 미국 농무부 식물내한성 구역(USDA plant hardiness zone)상 7구역(zone 7) 보다 따뜻한 지역, 즉 동절기 평균최저기온이 -17.8~-12.2°C 보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활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관리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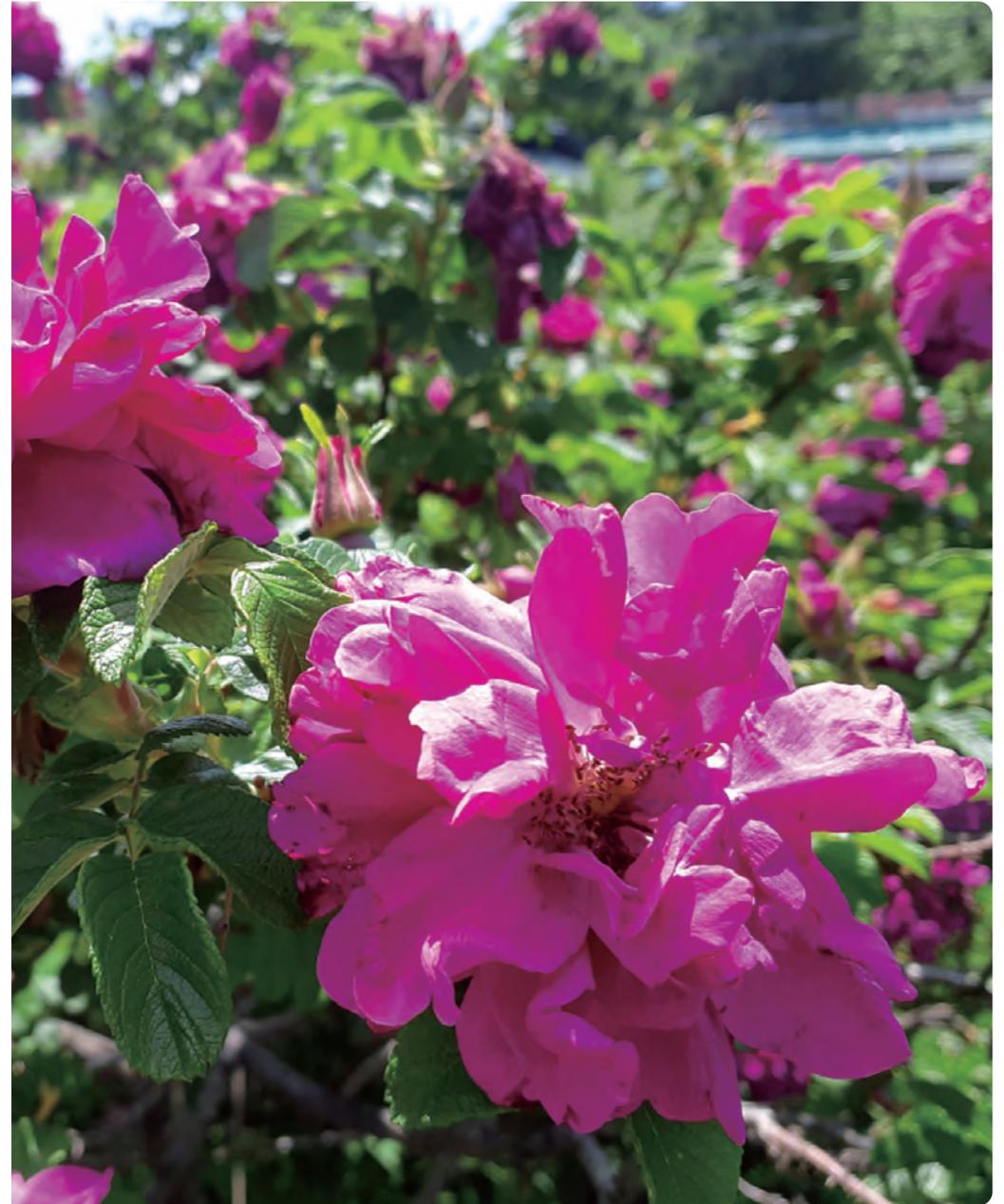
그러나 일반적으로 광량과 토양의 배수 두 가지 환경요인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해당화는 키우기 쉬운 식물이다. 해당화는 대다수의 장미류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검은무늬병, 장미녹병, 흰가루병 등에 대해 매우 높은 내성을 지니며, 간혹 진딧물이 생기거나 나방이나 잎굴파리류의 유충에 의한 잎의 식해 및 콩팥덩이류에 의한 꽃의 식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는 편이다.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닷가나 겨울철 제설제로 인해 염의 축적이 많은 도로변 등의 환경에서도 다른 장미류와 달리 원활한 생육이 가능하며, 강한 바람과 건조한 환경에 대한 내성도 다른 장미류에 비해 강하다. 해당화는 -40°C의 극심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기, 강원 내륙지방이나 국외의 알래스카, 스칸디나비아, 캐나다, 러시아 내륙 등의 지역에서도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월동할 수 있다.

다만 해당화 교배종의 경우 다른 장미류의 유전자 비율이 높을수록 강건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품종별로 특성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해당화는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웃자람이 심해지고 병충해에 대한 내성이 약해지므로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농약에 의한 약해가 잘 발생하는 편이므로 병충해 방제 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 🌸 | 해당화의 번식법

정원에서 해당화를 키우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해당화를 증식시킬 필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해당화를 비롯한 모든 식물의 번식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한 유형은 종자를 통한 유성번식이다. 유성번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번의 수정을 통해 다수의 종자가 발생하므로 단기간에 다수의 식물체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적이다. 그러나 발아시킨 식물체가 생리적으로 성숙하여 개화 및 결실 등 원하는 특성을 발현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종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해당화를 비롯한 장미류는 파종 후 개화하기까지 보통 2~5년 가량이 소요된다. 또 유성번식은 수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전자재조합으로 인해 부모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얻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로 인해 유성번식법은 새로운 특성을 지닌 품종을 육종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특정한 재배품종을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온대 및 냉, 한대 원산의 식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해당화의 종자 역시 휴면성을 지니므로 발아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면이 타파되어야 한다. 해당화 종자의 휴면타파를 위해서는 증적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익은 열매로부터 종자를 채집하여 습한 모래와 섞어 마르지 않도록 한 후 냉장고 등에 넣어 2~4°C의 온도에서 4~6개월 저장하면 된다. 혹은 여건에 따라 채종 후 바로 화분에 심어 겨우내 야외나 베란다 등 기온이 5°C 이하로 낮아지는 위치에 두거나, 종자를 자루에 담아 겨울 동안 땅에 파묻어두는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다른 한 가지 유형은 무성번식으로, 식물이 지닌 전형성능, 즉 모든 세포 및 조직으로부터 새로운 개체가 재생되는 것이 가능한 특성을 활용하여 종자가 아닌 잎, 줄기 등 영양기관을 통해 모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클론을 만드는 방식이다. 무성번식법은 조직배양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성번식에 비해 번식의 효율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특정한 재배품종을 번식시키는 등 모체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해야 하는 경우나 겹꽃이 피거나 다배체성인 품종 등 정상적으로 종자를 형성하지 못하는 재배품종을 증식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또한 무성번식을 통해 증식한 묘는 조직배양의 경우를 제하면 번식체의 생리적인 성숙도를 유지하므로 실생묘와 달리 바로 개화 및 결실이 가능한 생리적으로 성숙한 개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해당화의 무성번식은 대개 포기나누기와 삽목의 형태



▲ 해당화의 겹꽃 재배품종

로 이루어진다. 포기나누기는 가을철이나 이른 봄에 포기의 기부에서 올라온 가지들을 뿌리가 붙은 채로 분리하면 된다. 삽목 역시 가을이나 이른 봄에 하는데, 가지를 15~20cm 길이로 잘라 녹소토나 소립의 마사토, 암면 블록 등 배수가 잘되고 거름기가 없는 용토에 꽂고 그늘에서 마르지 않게 관리하면 발근한다.

또 다른 무성번식법으로 접목법이 있는데, 접목은 한두 마디의 가지나 하나의 눈만을 접수로 써서도 번식시킬 수 있으며, 대목의 선택에 따라 토양병해 및 불량한 토양조건에 대한 내성 부여, 내한성 증진, 생육량 조절이 가능하여 장미류를 상업적으로 증식시킬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해당화의 교배종들은 대개 접목을 통해 증식하는데, 대목은 짙레 및 해당화 실생묘가 많이 사용되며, 접목의 방식은 T자형 아접이 일반적이다. 접목의 시기는 가을철이 대개 적합하고, 접목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접수 제조** | 당년지에서 충실한 눈을 고른 후, 선정된 눈 아래 붙은 잎을 잎자루 일부분 남기고 제거한다. 눈 아래쪽 1~1.5cm 위치에 접도를 대고 엄지손가락으로 날을 위쪽으로 밀어 목질부가 약간 볼도록 베어내고, 눈 위쪽 0.5cm 지점을 횡으로 그어 눈을 떼어낸다. 떼어낸 눈의 안쪽에 붙은 목질부는 제거한다.

**대목 준비** | 대목은 상단부를 자르지 않은 전년생 또는 당년생 가지를 활용하며, 평탄하고 작업이 편리한 부분을 접목 부위로 선택하여 접도로 T자형의 금을 그은 다음 수피를 목질부로부터 분리한다.

**접목시행 및 사후관리** | 대목에서 금을 그어 수피를 분리시킨 부분에 채취한 접수를 삽입한 뒤, 접목 부위를 비닐 끈 등으로 감는다. 이때 눈이 비닐에 덮여서는 안 되며, 너무 험겁게 매면 접수가 움직이거나 말라서, 너무 단단히 동여매면 접목부위의 조직이 손상되어 활착에 실패하게 되므로 적당한 힘을 주어 매도록 한다. 또한 접목 부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접목의 성공여부는 접목 후 10여일 후 판단 가능한데, 눈의

활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잎자루가 말라붙지 않고 황화된 후 깨끗이 떨어지지만 실패한 경우 잎자루가 그대로 달린 상태에서 말라붙게 된다. 접수가 대목에 접합된 후에는 접목 부위의 상단을 잘라 주어야 하며, 접목한 첫해의 겨울철에는 지나친 저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한다. 월동 후에는 접합부의 상태를 보아 비닐 끈을 풀어준다.

접목을 통해 번식된 나무를 정원에 식재하였을 때 간혹 대목의 눈이 자라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내버려 두면 대개 본래 기르고자 하였던 품종, 즉 접수가 자란 부위가 대목이 자란 부위와의 경쟁에 지면서 결국 대목만이 남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목의 눈이 자란 부위를 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목묘를 정원에 식재할 때 접목부위가 지표면으로부터 3~7cm 깊이에 위치하도록 깊게 심으면 대목의 싹이 자라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땅속에 묻힌 접수로부터 자체적으로 뿌리가 나와 생육이 양호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점토질 토양 등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는 적합하지 않다.

## ❁ | 해당화의 식재디자인 활용

정원에서 해당화는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화단에 집단으로 군식하거나 생울타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특히 해안지대에서 해당화 생울타리는 다른 관목이나 숙근초를 해풍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유용하며, 꽃의 색과 형태가 다양한 여러 품종의 해당화와 섞어 심으면 더욱 아름답다. 단독으로 식재하였을 때도 늦봄부터 초가을까지의 꽃이, 여름부터 초겨울까지는 열매가, 겨울철에는 가지가 아름다워 연중 관상적 가치를 갖는다. 또한 식물체가 돋보이는 형태와 질감을 지녀 전체적인 경관의 틀을 구성하고 감상의 초점을 제공하는 구조적 식물 **structural plant**로서도 활용가치가 높다. 예를 들자면 숙근초 화단

에 해당화를 식재하여 다른 숙근초와의 질감 대비를 통해 리듬감을 주는데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장미류와 달리 황갈색 가지에 가시가 뾰뾰하게 달려 겨울철에도 밀도와 무게감을 지닌다는 점을 활용하여 겨울철 정원의 밋밋한 분위기를 피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해당화는 건축물의 기초를 가리기 위한 기초식재(foundation planting)의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다. 해당화는 낙엽성 식물로서 일반적으로 기초식재용으로 널리 심는 회양목이나 주목과 같은 상록성 식물과 달리 계절감을 지니는 한편, 줄기에 가시가 조밀하여 다른 낙엽성 식물과 달리 겨울철에 앙상한 느낌이 덜하고, 또 건물 기단부에 형성되기 쉬운 건조한 조건에도 잘 견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외에 해당화는 새들이 열매를 먹어 생태정원에 활용가치가 높으며, 땅속줄기와 흡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경사지에서 사방용으로도 식재될 수 있다.

## ❁ | 해당화의 주요 재배품종 및 교배종

해당화는 야생형 그 자체로서도 아름다운 식물이기도 하나, 현대 장미 재배품종들이 지닌 화색과 화형의 다양성에 비하면 아무래도 단순한 면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연상태의 해당화 중에서도 돌연변이를 통해 흰색이나 연분홍색 등 일반적이지 않은 화색이나 겹꽃으로 피는 등 독특한 화형을 갖추게 된 개체들이 종종 발생하며, 드물긴 하나 해당화 자생지에 찔레나 생열귀나무 등 다른 장미류가 동시에 분포하는 경우에는 중간교잡이 일어나 독특한 개체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것 중 관상가치가 높은 일부는 원예가의 눈에 띄어 선발됨에 따라 재배품종이 되기도 하였다. 또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구미권에서는 강건함과 독특한 잎의 질감 및 형태 등 해당화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화색과 화형을 지니는 새로운 재배품종을 만들기 위해 해당화를 다른 장미와 교배시키기도 하였으며, 또 정원에 해당화가 다른 장미류와 같이 재배되면서 둘 사이에 우발적인 교잡종이 형성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겨난 해당화의 재배품종 및 교배종 중에는 야생형과는 다른 멋을 지녀 정원에서 널리 가꾸어지기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 다수 있다.

해당화의 재배품종 및 해당화를 교배친으로 하는 교배종으로서 오늘날까지 명맥이 이어져 수급이 가능한 품종으로는 90여 품종이 있다고 하나, 여기에서는 가장 주요한 품종 25가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 ❁ *Rosa rugosa* 'Alba'

- 교배친 *Rosa rugosa* 의 자연적인 화색변이
- 육종가 및 작출연도 해당사항 없음
- 수고 및 수폭 1.8\*1.8m
- 화색 및 화형 백색, 대륜 홑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정상
- 배체수 2n
- 기타 흰해당화. 화색만 동일할 뿐 유전적으로 다른 개체들도 같은 품종명으로 유통되므로 잎의 특성이나 수형 등 영양기관의 특성에 있어 상이할 수 있다.

### ❁ *Rosa* 'Agnes'

- 교배친 *Rosa rugosa* × *Rosa foetida* 'Persiana'
- 육종가 및 작출연도 Saunders, 1922
- 수고 및 수폭 1.5\*1.5m
- 화색 및 화형 호박색을 띄는 황색, 중륜 겹꽃
- 반복개화성 없음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중간
- 결실성 없음
- 배체수 5n
- 기타 캐나다 중앙농업시험장(Central Experimental Farm)에서 작출된 품종이다. 전반적인 내병성은 강하나 다만 녹병에 감수성을 지닌다.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꽃이 퇴색하여 연한 분홍빛을 띠기도 한다. 강전정을 싫어하므로 피하도록 한다.

### ※ *Rosa* 'Belle Poitevine'

- 교배친 *Rosa rugosa* 'Regeliana'의 우발실생
- 육종가 및 작출연도 Bruant, 1894
- 수고 및 수폭 1.5\*1.5m
- 화색 및 화형 분홍색, 대륜 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약함
- 배체수 2n
- 기타 가지가 조밀하게 자라므로 생울타리용으로 적합하다.

### ※ *Rosa* 'Blanc Double de Coubert'

- 교배친 *Rosa rugosa* 'Alba'의 실생묘, 화분친은 알려져 않으나 *Rosa* 'Mademoiselle de Sombreuil'가 유력함
- 육종가 및 작출연도 Cochet-Cochet, 1892
- 수고 및 수폭 1.5\*1.2m
- 화색 및 화형 백색, 대륜 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매우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약함
- 배체수 미상
- 기타 거트루드 지킬에 의해 당대 영국에서 재배되던 장미 중 가장 하얗고 뛰어난 장미로 간주된 품종이다. 가을철 단풍도 감상 가치가 높다. 개화기에 다습한 날씨가 오래 이어지면 꽃봉오리 바깥이 꽃잎이 문드러진 채 문쳐서 꽃이 피지 못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 ※ *Rosa* 'Charles Albanel'

- 교배친 *Rosa* 'Souvenir de Philémon Cochet' × 미상
- 육종가 및 작출연도 Svejda, 1982
- 수고 및 수폭 0.3\*0.9m

- 화색 및 화형 자색, 대륜 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정상
- 배체수 2n
- 기타 Canadian Explorer Rose 시리즈에 속하는 품종으로, 여름 내내 풍성한 겹꽃을 볼 수 있는 다화성의 품종이며, 키가 작으면서 옆으로 퍼지는 수형을 지녀 지피용으로 적당한 품종이다.

### ※ *Rosa* 'David Thompson'

- 교배친 *Rosa* 'Schneezweg' × *Rosa* 'Fru Dagmar Hastrup'
- 육종가 및 작출연도 Svejda, 1979
- 수고 및 수폭 1.2\*1.2m
- 화색 및 화형 진분홍색, 중륜 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없음
- 배체수 2n
- 기타 Canadian Explorer Rose 시리즈에 속하는 품종으로, 반복개화성이 뛰어나며 종자친인 *R.* 'Schneezweg'의 영향을 받아 잎이 작은 편이다.

### ※ *Rosa* 'Fimbriata' syn. 'Dianthiflora'

- 교배친 *Rosa rugosa* × *Rosa* 'Madame Alfred Carrière'
- 육종가 및 작출연도 Morlet, 1891.
- 수고 및 수폭 1.2\*1.2m
- 화색 및 화형 분홍색을 띠는 백색, 소륜 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약함
- 배체수 3n
- 기타 꽃잎의 말단부가 톱니처럼 갈라진 특성을 보인다. 꽃의 형태가 카네이션과 유사하여 ‘Dianthiflora’ 라는 이름을 지닌다.

### ※ *Rosa* ‘F. J. Grootendorst’

- 교배친 *Rosa rugosa* × *Rosa* ‘Madame Norbert Levasseur’
- 육종가 및 작출연도: de Goey, 1918
- 수고 및 수폭 1.5\*1.2m
- 화색 및 화형 진홍색, 소륜 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없음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중간
- 결실성 없음
- 배체수 2n
- 기타 꽃잎의 말단부가 톱니처럼 갈라진 특성을 보인다. 수형은 직립성을 띤다. 화색이 달라진 아조변이 품종이 많은데, 화색이 더 진한 ‘Grootendorst Supreme’, 화색이 분홍색인 ‘Pink Grootendorst’, 화색이 백색인 ‘White Grootendorst’ 가 있다.

### ※ *Rosa* ‘Fru Dagmar Hastrup’

- 교배친 *Rosa rugosa* 의 우발실생
- 육종가 및 작출연도 Hastrup, 1914
- 수고 및 수폭 1.2\*1.2m
- 화색 및 화형 연분홍색, 대륜 홑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정상
- 배체수 2n
- 기타 덴마크 코펜하겐 인근에 위치하였던 종묘사 하스트를 농장에서 선발된 품종으로, 일반적인 해당화에 비해 화색이 연하고 꽃과 열매의 크기가 매우 크다. 가을철 단풍이 좋다.

### ※ *Rosa* ‘HANpur’

- 교배친 *Rosa* ‘White Hedge’ 의 실생으로부터 선발
- 육종가 및 작출연도 Baum, 1983
- 수고 및 수폭 0.9\*0.9m
- 화색 및 화형 자주색, 중륜 반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정상
- 배체수 미상
- 기타 왜성품종으로 지피용이나 길가의 낮은 생울타리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상표명 Purple Pavement로 유통된다.

### ※ *Rosa* ‘Hansa’

- 교배친 미상
- 육종가 및 작출연도 Schaum & Van Tol, 1905
- 수고 및 수폭 2.1\*2.1m
- 화색 및 화형 적자색, 대륜 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매우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정상
- 배체수 2n
- 기타 생육이 매우 왕성한 품종으로 흡수가 많이 발생하기에 생울타리용으로 적합한 품종이다. 열매가 많이 달리는 편이며, 가을철 단풍이 좋다.

### ※ *Rosa* ‘HANsno’

- 교배친 미상
- 육종가 및 작출연도 Baum, 1984
- 수고 및 수폭 0.9\*0.9m
- 화색 및 화형 백색, 중륜 반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정상
- 배체수 미상
- 기타 왜성품종으로 지피용이나 길가의 낮은 생울타리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상표명 Snow Pavement로 유통된다.

#### ※ *Rosa* ‘Henry Hudson’

- 교배친 *Rosa* ‘Schneezwerg’의 방임수분 실생으로부터 선발
- 육종가 및 작출연도 Svejda, 1976
- 수고 및 수폭 1.2\*0.9m
- 화색 및 화형 백색, 중륵 반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없음
- 배체수 2n
- 기타 Canadian Explorer Rose 시리즈에 속하는 품종으로, 왜성종이다. 엽색이 짙어 화색과의 대비가 아름답다. 기온이 낮으면 꽃이 분홍빛을 띠기도 하며, 해당화와 달리 꽃봉오리의 형태가 동그랗다.

#### ※ *Rosa* ‘Jens Munk’

- 교배친 *Rosa* ‘Schneezwerg’ × *Rosa* ‘Fru Dagmar Hastrup’
- 육종가 및 작출연도 Svejda, 1974
- 수고 및 수폭 1.5\*1.5m
- 화색 및 화형 밝은 분홍색, 중륵 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약함
- 배체수 2n
- 기타 Canadian Explorer Rose 시리즈에 속하는 품종이다. 잎이 작은 편이다. 꽃잎에는 흰 줄무늬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저온기에 꽃이 많이 피는 특성이 있다.

#### ※ *Rosa* ‘Kaiserin des Nordens’

- 교배친 *Rosa rugosa* × *Rosa davurica*
- 육종가 및 작출연도 von Regel, 1879
- 수고 및 수폭 2.1\*1.8m
- 화색 및 화형 진분홍색, 중륵 반겹꽃
- 반복개화성 없음
- 방향성 중간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약함
- 배체수 미상
- 기타 상트페테르부르크 식물원의 원장 폰 레겔에 의해 카를 요한 막시모비치가 일본에서 채집하여 보낸 종자에서 발아한 개체 중에서 선발된 품종이다. 국내의 ‘만첩해당화’, 중국의 ‘홍자매紅刺玫’, 일본의 ‘마이카이玫瑰’와 매우 흡사하며,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해당화와 달리 줄기의 상부에는 가시가 적게 나며, 줄기의 마디에 한 쌍으로 나는 굽은 형태의 가시와 마디 사이에 나는 곧은 가시 두 가지 형태의 가시를 지닌다.

#### ※ *Rosa* ‘Martin Frobisher’

- 교배친 *Rosa* ‘Schneezwerg’의 방임수분 실생으로부터 선발
- 육종가 및 작출연도 Svejda, 1968
- 수고 및 수폭 1.5\*1.2m
- 화색 및 화형 연분홍색, 중륵 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약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중간

- 결실성 없음
- 배체수 2n
- 기타 Canadian Explorer Rose 시리즈에 속하는 품종이다. 줄기는 가시가 적고 겨울철에 붉은빛을 띤다. 검은무늬병에 약하다.

### ※ *Rosa* ‘Mrs. Anthony Waterer’

- 교배친 *Rosa rugosa* × *Rosa* ‘Général Jacqueminot’
- 육종가 및 작출연도 Waterer, 1898
- 수고 및 수폭 1.2\*1.5m
- 화색 및 화형 진홍색, 중륵 겹꽃
- 반복개화성 중간
- 방향성 매우 강함
- 내한성 중간
- 내병성 중간
- 결실성 없음
- 배체수 3n
- 기타 잎과 꽃의 형태 등 전반적인 특성은 종자친인 해당화보다는 화분친과 더 유사하다. 생육은 왕성하다.

### ※ *Rosa* ‘Nyveldt's White’

- 교배친 (*Rosa rugosa* × *Rosa majalis*) × *Rosa nitida*
- 육종가 및 작출연도 Nyveldt, 1955
- 수고 및 수폭 1.5\*1.2m
- 화색 및 화형 백색, 대륵 홑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정상
- 배체수 미상
- 기타 흰해당화와 유사하나 잎의 색이 다소 옅고 가지는 늘어지게 자라는 특성이 있다. 가지가 조밀하게 자라므로 생울타리용으로 적합하다.

### ※ *Rosa* ‘Rose à parfum de L’Hay’

- 교배친 (*Rosa* × *damascena* × *Rosa* ‘Général Jacqueminot’) × *Rosa rugosa*
- 육종가 및 작출연도 Gravereaux, 1901
- 수고 및 수폭 1.2\*1.2m
- 화색 및 화형 적자색, 대륵 반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매우 강함
- 내한성 중간
- 내병성 중간
- 결실성 약함
- 배체수 3n
- 기타 향수제조를 목적으로 육종된 품종으로, 해당화 고유의 형태적 특성은 약하나 매우 향기가 강하다.

### ※ *Rosa* ‘Roseraie de l’Hay’

- 교배친 *Rosa rugosa* 의 실생으로부터 선발
- 육종가 및 작출연도 Gravereaux, 1901
- 수고 및 수폭 1.8\*1.5m
- 화색 및 화형 적자색, 대륵 반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매우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약함
- 배체수 2n
- 기타 강한 향기와 길고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특징이며, 생울타리용으로 쓰이기도 하나 화단에 다른 관목 및 속근초와 혼식하면 아름답다.

### ※ *Rosa* ‘Sarah van Fleet’

- 교배친 *Rosa rugosa* × *Rosa* ‘My Maryland’
- 육종가 및 작출연도 van Fleet, 1926
- 수고 및 수폭 1.5\*1.2m
- 화색 및 화형 분홍색, 대륵 반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없음
- 배체수 2n
- 기타 유럽 재래장미와 유사한 향기를 지니는 품종이다. 수형은 다소 직립성을 띤다.

### ※ *Rosa rugosa* 'Scabrosa'

- 교배친 *Rosa rugosa* 의 우발실생
- 육종가 및 작출연도 Harkness & Co., 1950
- 수고 및 수폭 1.8\*1.2m
- 화색 및 화형 자주색, 대륜 홑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정상
- 배체수 미상
- 기타 일반적인 해당화보다 꽃과 잎, 열매의 크기가 크고 색이 짙다. 꽃은 직경 14cm에 달하기도 한다. 생육이 매우 왕성하고 강건하다.

### ※ *Rosa* 'Schneezweg'

- 교배친 *Rosa rugosa* × *Rosa beggeriana*
- 육종가 및 작출연도 Lambert, 1912
- 수고 및 수폭 1.2\*1.2m
- 화색 및 화형 백색, 중륜 반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정상

- 배체수 2n
- 기타 꽃도 관상 가치가 높지만 작은 열매가 무리 지어 달려 가을철과 겨울철에 관상 가치가 높다. 환경에 따라 다르기도 하나 생육속도가 느린 편이다.

### ※ *Rosa* 'Snowdon'

- 교배친 *Rosa* 'Alister Stella Gray' × *Rosa rugosa* 'Alba'
- 육종가 및 작출연도 Austin, 1985
- 수고 및 수폭 2.1\*1.8m
- 화색 및 화형 백색, 중륜겹꽃
- 반복개화성 약함
- 방향성 약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없음
- 배체수 미상
- 기타 대형 품종으로 수형이 아름답고 가지가 뻗뻗하다.

### ※ *Rosa* 'UHLwe'

- 교배친 미상
- 육종가 및 작출연도 Uhl, 1987
- 수고 및 수폭 0.9\*0.9m
- 화색 및 화형 연분홍색, 중륜 반겹꽃
- 반복개화성 강함
- 방향성 강함
- 내한성 강함
- 내병성 강함
- 결실성 정상
- 배체수 미상
- 기타 왜성품종으로 지피용이나 길가의 낮은 생울타리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상표명 Pierette Pavement로 유통된다.

## 참고문헌

- Aiton, W. T. 1811. Hortus Kewensis; or, a catalogue of the plants cultivated in the Royal Botanic Garden at Kew.
- Anderson, E. 1932. *Rosa rugosa* and its hybrids. Arnold Arboretum Harvard University. Bull. of Popular Information, 3(6), 29-35.
- Bailey, L. H. 1906. Cyclopaedia of American Horticulture.
- Bretschneider, E. 1871. On the study and value of Chinese botanical works, with notes on the history of plants and geographical botany from Chinese sources.
- Bretschneider, E. 1892-1895. Botanicon Sinicum. Notes on Chinese Botany from Native and Western Sources. Parts II.
- Bruneau, A., Starr, J. R., & Joly, S. 2007. Phylogenetic relationships in the genus *Rosa*: new evidence from chloroplast DNA sequences and an appraisal of current knowledge. Systematic Botany, 32(2), 366-378.
- Bruun, H. H. 2005. *Rosa rugosa* Thunb. ex Murray. Journal of Ecology, 93(2), 441-470.
- Bunge, A. G. 1831. Enumeratio plantarum, quas in China bore ali collegit Dr. Al. Bunge, anno 1831.
- Candolle, A. D. 1825. Prodrromus systematis naturalis regni vegetabilis, vol. 2.
- Chambers, E., & Rees, A. 1784. Cyclopædia.
- Chang, C. S., Kim, H., Gil, H. Y. 2012. A Field Guide to Korean Woody Plants. Paju: Designpost
- Chang, C.S. & Kim, H. 2015. The Woody Plants of Korea. Beta Version.
- Chang, J. S. & Chang, K. S. (2005). The distribution of the woody plants of South Korea based on herbarium (SNUA) material of The Arboretum (XII). Bulletin of the Arboretum Seoul National University, 25, 1-27.
- Chinese Plants. 1817. The Asiatic journal and monthly register for British India and its dependencies, vol. 4, 19-21, 131-134, 225-228, 350-353, 568-570.
- Chinese Plants. 1818. The Asiatic journal and monthly register for British India and its dependencies, vol. 5, 354-356.
- Cockerell, T. D. A. 1929. The evolution and classification of roses. Torreya, 97-103.
- Curtis, W. 1832. *Rosa kamchatica*. Curtis's botanical magazine, (59), t. 3149.
- de Chesnel, A. 1820. Histoire de la rose chez les peuples de l'antiquité et chez les modernes. Description des espèces cultivées. Culture des rosiers. Propriété des roses, et leurs diverses préparations alimentaires, cosmétiques, etc., etc. Par M. le marquis de Chesnel, lieutenant-colonel de la légion infanterie légère des pyrénées-orientales, membre de plusieurs sociétés savantes, etc..
- Dirr, M. A. 1990. Manual of woody landscape plants: their identification, ornamental characteristics, culture, propagation and uses (No. Ed. 4). Stipes Publishing Co.
- Dumont de Courset, G. L. M. 1811. Le botaniste cultivateur, vol. 5.
- Fougère-Danezan, M., Joly, S., Bruneau, A., Gao, X. F., & Zhang, L. B. 2015. Phylogeny and biogeography of wild roses with specific attention to polyploids. Annals of Botany, 115(2), 275-291.
- Han, Y. H., Lee, Y. H., Kim, J. B., & Cho, K. J. 2013. Vegetation characteristics of coastal sand dune in the East Coas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16(1), 55-69.
- Hoffmann, J. J., & Schultes, H. 1864. Noms indigènes d'un choix de plantes du Japon et de la Chine.
- Ibrar, M., Shinwari, M. I., & Khan, M. A. 2003. Bibliography of the genus *Rosa* L. Hamdard Medicus, 46(3).
- Jung, Y. K. 1999. Coastal mantle communities in South Korea and Japan. Korean Journal of Ecology, 22(6), 317-324.

- Kelager, A., Pedersen, J. S., & Bruun, H. H. 2013. Multiple introductions and no loss of genetic diversity: invasion history of Japanese Rose, *Rosa rugosa*, in Europe. *Biological Invasions*, 15(5), 1125-1141.
- Ker Gawler, J. B. 1819. *Rosa ferox*. The botanical register, (5), t. 420.
- Ker Gawler, J. B. (1819). *Rosa kamchatica*. The Botanical Register, (5), t. 419.
- Kunttu, P., & Kunttu, S. M. 2017. Distribution and habitat preferences of the invasive alien *Rosa rugosa* (Rosaceae) in Archipelago Sea National Park, SW Finland. *Polish Botanical Journal*, 62(1), 99-115.
- Lange, J. 1874. Index Seminum in Horto Academico Hauniensi. Copenhagen Botanical Garden, Copenhagen.
- Lawrance, M. 1797. A collection of roses from nature.
- Lemaire, C. A. 1871. L'illustration horticole. (18), 11-12.
- Lindley, J. 1820. Rosarum monographia.
- Lindley, J. 1848. New plants, etc., from the Society's garden. *Journal of the Horticultural Society of London*, (3), 318-319.
- Link, H. F. 1822. Enumeratio: plantarum horti regii botanici Berolinensis altera.
- Liu, C., Wang, G., Wang, H., Xia, T., Zhang, S., Wang, Q., & Fang, Y. 2015. Phylogenetic relationships in the genus *Rosa* revisited based on rpl16, trnL-F, and atpB-rbcL sequences. *HortScience*, 50(11), 1618-1624.
- Loudon, J. C. 1844. Arboretum et fruticetum britannicum.
- Meehan, T. 1873. A new species of rose. *The Gardener's Monthly and Horticultural Advertiser*, (15), 316-317.
- Meyer, C. N. 1849. Über die Zimmtrosen, insbesondere über die, in Russland wildwachsenden Arten derselben. *Mémoires de l'Académie impériale des sciences de St.-Petersbourg*, ser. 6 t. 6.
- Meyer, F. N. 1911. Chinese plant names.
- Monder, M. J. 2012. Evaluation of growth and flowering of cultivars derived from the *Rugosa* (*Rosa rugosa* Thunb.) growing in the national collection of rose cultivars in the Polish Academy of Sciences Botanical Garden in Powsin. Part I. Historical cultivars. *Acta Agrobotanica*, 65(2).
- Nakai, T. 1909. *Flora Koreana*, vol. 1. *Journ. Coll. Sci. Imp. Univ. Tokyo*, (26), 1-304.
- Nakai, T. 1916. *Flora sylvatica Koreana VII* (Rosaceae). *Bot. Mag. Tokyo*, (30), 217-242.
- Ohwi, J. 1965. *Flora of Japan* (English ed.). FG Meyer and EH Walker. Washington, DC, 192.
- Parker, E. H. 1883. Szech'uan Plants. *The China review*, vol. 11, no. 6, 339-342.
- Redouté, P. J., & Thory, C. A. 1817. *Les Roses* vol. 1.
- Regel, E. A. 1877. *Tentamen rosarum monographiae*.
- Ridgway, J. 1824. *Rosa kamchatica* var. *nitens*. The botanical register, (10), t. 824.
- Roberts, A. 2003. *Encyclopedia of rose science*. Academic Press.
- Robinson, W. 1876. *The Garden: an illustrated weekly journal of gardening in all its branches*, vol. 9.
- Rozier, F. (Ed.). 1809. *Nouveau cours complet d'agriculture théorique et pratique... ou Dictionnaire raisonné et universel d'agriculture: ouvrage rédigé sur le plan de celui de feu l'abbé Rozier..*, vol. 12.
- Rubtsova, O., & Chizhankova, V. 2017.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rost tolerance of cultivars derived from the *Rosa rugosa* Thunb. *Journal of Applied Horticulture*, 19(1), 67-69.
- Savatier, L. 1873. *Botanique japonaise : livres Kwa-wi / [par Yōnan]; traduits du japonais, avec l'aide de M. Saba, par le Dr L. Savatier*

## 참고문헌

- Sennikov, A. N. 2004. A note on ornamental intersectional hybrids of *Rosa* between sect. *Cinnamomeae* and *Rugosae* (Rosaceae) in the St.-Petersburg area, Russia. *Memoranda-Societatis pro Fauna et Flora Fennica*, 80(2), 74-78.
- Seringe, N. C. 1823. Musée helvétique d'histoire naturelle, ou, Collection de mémoires, monographies, notices botaniques, tome I.
- Siebold, P. F. V., Zuccarini, J. G., & Miquel, F. A. W. 1835. *Flora Japonica*.
- Smulders, M. J. M., Arens, P., Koning-Boucoiran, C. F. S., Gitonga, V. W., Krens, F. A., Atanassov, A., ... & Raymond, O. (2011). *Rosa*. In *Wild Crop Relatives: Genomic and Breeding Resources* (pp. 243-275). Springer, Berlin, Heidelberg.
- Thory, C. A. 1820. *Prodrome de la monographie des espèces et variétés connues du genre rosier, divisées selon leur ordre naturel*.
- Thunberg, C. P. 1784. *Flora japonica*.
- Tomljenovic, N., & Pejić, I. 2018. Taxonomic review of the genus *Rosa*. *Agriculturae Conspectus Scientificus*, 83(2), 139-147.
- Ventenat, É. P. 1802. *Description des plantes nouvelles et peu connues, cultivees dans le jardin de JM Cels*.
- Verrier S. 1991. *Rosa rugosa*. Capability's Books, USA.
- Vilmorin M. L. 1905. *Journal des Roses* 29: 60-62
- Weber, C. 1963. Cultivars in the genus *Chaenomeles*. *Arnoldia*, 23(3), 17-75.
- Willmott, E., & Parsons, A. 1914. *The Genus Rosa*.
- Wissemann, V., & Ritz, C. M. 2005. The genus *Rosa* (Rosoideae, Rosaceae) revisited: molecular analysis of nrITS-1 and atp B-rbc L intergenic spacer (IGS) versus conventional taxonomy. *Botanical journal of the Linnean Society*, 147(3), 275-290.
- Wu, Z., Raven, P. H., & Hong, D. 2003. *Flora of China*. Volume 9: *Pittosporaceae* through *Connaraceae*. Science Press.
- 공광성. 2017. 고전식물명 두충(杜冲)에 관한 고찰. *건지인문학*, 18, 5-30.
- 김사일. 1998. 새로운 조경수 (IV X IV)-해당화. *Landscaping Tree*, 47(11\_12), 11-14.
- 김혜진, 신학섭, 한상학, 고승연, 강혜진, 이서희, ... & 윤충원. 2013. 서해안 해안사구식생의 유형분류와 사구토양 및 식물 무기성분 비교. *한국산림과학회지*, 102(3), 345-354.
- 나카무라 고이치. 조성진, 조영렬 역. 2004. *한시와 일화로 보는 꽃의 중국문화사*. 뿌리와이파리. 서울.
- 이창우, 김찬범, 손요환, 배영태, 박기형, 윤호중, & 김경하. 2013. 중부 서해안 해안사구 자생식물과 귀화식물 군락의 토양특성 비교. *한국산림과학회지* (구 한국임학회지), 102(3), 323-330.
- 임경빈. 2001. 조경수목 산책 42-해당화 (I). *Landscaping Tree*, 63(7\_8), 5-8.
- 임경빈. 2001. 조경수목 산책 43-해당화 (II). *Landscaping Tree*, 64(9\_10), 9-12.
- 정연화, 김성태, 김기준, 이자현, 기광연, & 한태호. 2010. 장미속 유전자원의 유전적 관계와 국내 해당화의 유전적 다양성. *원예과학기술지*, 28(6), 1003-1013.
- 정우진, 권오만, & 심우경. 2014. 명대 원림서에 기술된 죽병(竹屏)의 활용과 그 의미.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1), 83-92.
- 정태현, 도봉섭, & 심학진. 1949. *조선식물명집*.
- 최라윤. 2012. 18-19 세기 조선 사대부의 식물소재 연출기법 및 완상방식에 관한 연구: 다산 정약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팽철호. 2014. 한국에서 다른 식물로 인식되는 중국문학 속의 植物 (2)-海棠花·杜鵑花·躑躅의 경우. *중국어문학*, (67), 65-84.

